

월간 **충현**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78 12월호

한해를 보내면서

세월이 여유하다는 말도 있고 살갑이 빠른 광음이라는 말도 있거니와 하여간 1978년 이 한해도 이제 거의 다 저물어 가고 있다. 큰 기대와 다짐으로 시작하였던 1978년은 이제 그 막을 서서히 내리고 있다. 이 한해를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 힘든 일, 두려운 일도 없지 않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은혜로 또 한해를 보내게 되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 달란트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 주시었다.

그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그리고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겨 주신 것을 볼 수 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 같은 곳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 그 재능을 따라 각양의 은사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Stewards)들이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다(Steward is not a master). 그리고 청지기에 있어서는 주인과 더불어 계산할 날이 반드시 있는 것이다. 신실한 청지기였느냐, 불의한 청지기였느냐 하는 것은 그가 내어 놓은 보고서를 보아 판가름이 날 것이다.

금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이 순간, 지금 우리 모두는 다 이 보고서를 정리해야 할 때이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러하다. 교회적으로 볼 때 금년은 우리교회가 이 땅에 태어난 지 25주년이 되는 해였다. 이제 충현교회도 청년기에 속한 교회가 되었다. 청년으로서의 충현교회가 금년에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하였는가? 일일이 다 열거하기가 어렵겠으나 우리의 머리속에 남아 있는 대표적인 일들로는 대개 이런 것들이 생각난다.

무엇보다도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충현기도원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였다는 점이라 하겠다. 참으로 훌륭한 시설을 갖춘 아름다운 기도원이 완공되어 금년 주일학교 각.부서의 여름성경학교 혹은 하기수양회를 이곳에서 은혜스럽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일로 생각이 난다.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하기수양회를 개최할 장소가 없어 년초부터 장소를 물색하느라 신경을 쓰곤 하여 왔었는데 이제 그런 염려가 없

어졌다. 그리고 기도원에서 이제 마음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10월부터는 기도원을 전담하시는 목사님도 모시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한가지 커다란 보고거리로는 지난 5월 25일 충현교회가 강남구 논현동 현장에서 새성전 기공예배를 드렸다는 점이다. 금년에 본격적인 공사를 위한 정지작업에 시작하는 정도이지만 머지 않아 해동이 되고 날씨가 풀리게 되면 새 예배당 건설공사는 힘있게 진척되리라 믿고 있다. 온 교회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거니와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 새성전 건축 문제는 시급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주일날 대예배시에 보면 장소가 비좁아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일학교 각부에서도 역시 그러하다. 어떤 부서에서는 2부 3부로 예배를 나누어 드리고 있는 데도 있다.

그리고 또 금년에 특기할 만한 행사로는 충현 선교대회를 들 수가 있겠다.

교회설립 25주년 기념 행사들과 또한 1사단 예하 군중사병 훈련과 아울러 지난 9월23일에 있었던 1사단 진중합동세례식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3천2백여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한국교회사상 처음있는 일이었다. 내년도에는 5천명 합동세례식을 우리교회가 주관할 수 있었으면 하고 소원하여 본다.

이 모든것이 다 인간의 힘으로나 인간의 수단으로 된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일들이요 아름다운 행사들이었다. 그외에도 눈에 드러나지 않게 수많은 일들을 각기관들과 속회들을 통하여 이루어 하신줄로 믿고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우리가 한 일들 가운데에는 시행착오를 범한 일들과 내어놓기 부끄러운 일들도 없지 않아 많았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는 다 우리의 무지와 경험의 부족과 기도의 부족으로 인한 실수와 허물이었을 것이다. 금년이 다가기 전에 이런 점은 깨끗이 회개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할 것이다. 이제 1978년 이 한해를 영원한 과거로 돌려 보내면서 또 새로운 한해를 소망중에 바라보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닥아오는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다.

〈주 간〉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12월의 행사

- 12/3 신구제적회, 산업전도의 총회
 12/10 남전도회·권사회 총회, 월간충현 12월호 발행
 12/17 여전도회 총회, 출판위원회 총회
 12/18 교육위원회 총회
 12/24 구역권찰회, 주일학교 각부 수료 및 진급식
 전도위원회 총회
 12/25 성탄절 (축하예배)
 12/26 정기당회, 교사총회
 12/31 해외복음선교회 총회

12월호 차례

<권두언> 한해를 보내면서.....	2
<이달의 말씀> 인생무상과 하나님 말씀의 영원성/김창인 목사.....	4
<이렇게 답한다>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표준/김하진 목사.....	6
<특집 I>	
· 성탄캐럴의 유래와 내용/김하진 목사.....	7
· 성탄동화·색연필/박종구 장로.....	8
<특집 II>	
· 말씀의 신비/김진택 목사.....	10
·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임정우.....	12
<주간간의 만나> 시편에서.....	13
<해외선교> 해외선교에 대한 새로운 활력소들/오태웅 집사.....	14
<찬송가 감상⑩> 기쁜 소리 들으니 /김중석 강도사.....	16
<1,200자 칼럼> 이것이나 저것이나 /오태웅 집사.....	16
<책소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조선근 장로.....	17
<이달에 만난 사람> 김태현·정관일 목사.....	18
<구역장 노우트⑤> 구역장 특별수련 자료(2) /백성룡 목사.....	20
<구역소식>.....	20
<교회뉴스>.....	21
<광고·편집후기>.....	26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27
<실로암못가에서>.....	28

표지설명: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의 찬송을 듣고 제일 먼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이들은 보잘것없는 양치기 목자들이었다.

제 6 권 제 60 호

월간 충현

충현교회 3대 목표

우리는 정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 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인생 무상과 하나님 말씀의 영원성

성경/이사야 40:6-8

김 창 인 목사

<본교회 당회장>



며칠 지나면 1978년도 영원한 과거로 지나가고 1979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묵은 해를 지나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말은 땅위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한 살씩 더 먹는다는 뜻이며 죽음 정거장에 한 걸음 성령 다가가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엄숙한 일을 앞에 놓고 급년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받은 은혜를 낱알이 조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알지 못하고 잘못된 허물과 선인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한 게으른 허물과 악인 줄 알고도 법한 죄악들을 살살이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고백서를 바쳐 용서를 받고 내년도에는 올바른 삶 수 있도록 성령님의 지혜를 받아 욕심에 매몰치 아니한 선계를 그려 예수님께서 오시고 웃으시며 해 주시는 결재를 받아 새해에는 힘있게 첫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서 세가지 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인생의 무상

인생은 무상합니다. 「무상하다」는 말은 「잠깐 있다 바뀐다, 변한다」는 뜻입니다.

인생은 광음이라 하는 수레바퀴를 타고 끊임없이 길을 가는 나그네들인데, 도시를 지나가 하면 농촌도 지나고, 산을 넘는다 하면 사막도 지나고, 웃는 사람도 만나고 우는 사람도 만나면서 지나가는 것처럼 인생일생의 환경은 일초도 같지 않는 변화무쌍한 세계를 내일을 살아 본 사람 한 사람도 없이 오늘에서 내일을 향하여 계속 걸어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이러한 나그네 인생들이 먼저 우리의 몸을 살펴보니 어떠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이라”

우리의 몸은 풀과 같습니다. 풀! 봄에는 예쁘고 여름에는 싱싱하더니 가을에는 빛깔도 누렇게 패들 때를 말라 쓰러지는 풀! 인생은 열 살, 스무 살 때에는 피부도 팽팽하고 서른 살, 마흔 살까지도 괜찮더니 쉰 살만 넘으면 팔 다리에 신경통이 오고 머리에 흰털 피기 시작하니 인생 가을이라 얼굴에 분을 발라도 예쁘지 않고 그렇게 아름다운, 피끄리보다도 듣기 좋은 목소리도 장작패는 소리로 들리니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세상 영광 지나간다
자랑할 것 없구나”
지나가 버립니다.

또한 권세의 영광 명예의 영광, 꽃처럼 떨어집니다. 꽃이 물결물결 봉오리질 때 예쁘고 웃으면서 피어날 때 예쁘지만 시들어 패들어지는 꽃, 그 이상의 치찰한 것이 없습니다. 권세도 재산도 명예도 좋으나, 아름다운 열매 없이 떨어지는 꽃은 저주와 비참입니다.

인생의 계획도 안개같이 변합니다. 안개가 뭉게뭉게 피어오를 때에는 세계를 덮는데, 그러나 안개는 햇빛이 비치고 바람이 불면 있던 자취도 없어집니다. 인생의 생명은 풀밭에 뻗었던 이슬처럼 떨어지고, 이렇게 세상 영광은 지나갑니다.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부도남을 믿고 교만하거나 자식을 믿고 교만하거나 자신을 믿고 교만한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는 시기심이 생기고 못한 사람에게는 멸시하고 같은 일에는 경솔하기가 쉬우니 하나님께는 욕이 되고 남에게는 패를 끼치고 받았던 복은 그르쳐 깨어지고 후손들에게는 저주를 물려주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것은, 타락한 인간의 모든 것은 다 무상합니다. 잠시 지나갑니다.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을 믿고 교만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무엇을 믿고 덤빌 것도 아니고, 만사가 기회를 놓치면 멸수없이 남에게 떨어져서 영욕이 즐기고 배고픈 일을 당하면서 멸시를 당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선을 심고 옷사람의 자랑감이 되는 선을 심고, 아랫사람에게 위트가 되는 선을 심고, 후손에게 복이 되는 선을 심고, 자신의 장래를 위하여 선을 심고, 수고의 땅을 흘려 가꾸고 사랑의 눈물로 거름주고 소망을 품고 인내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보고서를 준비하십시오.

2. 하나님 말씀의 영원성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면에서 영원합니까?

첫째, 권능의 말씀으로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를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신 권능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흑암 속에서, 혼돈한 속에서 “...있으라!” 짧은 말 한 마디로 우주를 질서정연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입니다.

둘째, 지혜의 말씀으로 영원합니다.

지어 놓으신 억만가지 모든 것들에게 지금도 명령하시어 질서정연하게 운행시키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세째, 공의로운 말씀으로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로우신 심판의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네째, 자비한 말씀으로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있는 자비한 말씀입니다.

“약하고 추해도…… 내게로 오너라”

의인단 예배당에 나오라고 하면 이 자리에는 그림자도 비칠 수 없는, 너도 나도 다 죄인인데 “죄인도 오라 응서해 주마!” 그 자비하신 음성,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영원하신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땅위에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공기로 숨쉬면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햇빛 밑에서 자라난 곡식·과실·채소를 선물로 받아 먹고, 입고 사는 나그네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하여 영광을 돌리고 무릎꿇어 겸손히 복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명분을 지키면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한 일에 충성함이 있을 줄 압니다.

3.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생의 신앙자세

그러면 하나님의 이 권능의 말씀, 지혜의 말씀, 심판의 말씀, 약속이 있는 자비하신 말씀에 대하여 우리들이 어떠한 신앙자세를 가지고 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먼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고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담대합니다. 모세처럼 어디든지 무슨 일이든지 주저함이 없이 담대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받으면

“아무데 아무데 겁낼 것 없네

아무데나 예수 함께 가려네”

충현의 성도들이여! 하나님만 믿고 우리의 정성을 바쳐 담대히 전진합니다.

세째, 전능하시고 영원성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조심성있게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사함 여호수아가 평생 승리를 거둔 것은 조심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네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찾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그 약속의 때가 오기까지 낙심하거나 타락하지 말고 인내의 허리띠를 동이고 조롱과 멸시를 커머거리처럼 참아 넘깁시다.

인간의 주위환경에는 커머거리가 되고 때로는 소경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허리띠를 동이면서 제일에 충성하고 자신의 신분을 지켜 감옥의 요셉에게 국무총리 자리가 기다리듯 축복을 기다리는 올바른 성도가 됩시다.

인간의 무상함을 알고 자기 자신을 믿지도 말고, 불의한 일에는 앞잡이가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감사찬송을 드리면서 담대히 선한 일에 전진하며, 실수할까봐 조심하면서 맡은 일에 충성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승리자의 자유와 영광, 성공

자의 평안과 윤택한 생활을 반드시 주십니다. 세상에서부터 누리게 하십니다.

“그 날을 날 기다리고

내 등불 밝게 켜다가

주께서 문을 여시면

이 영혼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생은 죄를 생각하니 너무 더럽습니다. 타락한 인생은 너무나 어리석어졌습니다. 타락한 인생은 너무나 약하여졌습니다. 타락한 인생은 기한도 너무 짧아져서 무상합니다. 타락한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너무나 값이 없습니다. 구더기처럼 더럽고 값이 없고, 하루살이처럼 약하여 값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맙시다. 안심하지 맙시다. 방종하지 맙시다. 남의 앞잡이가 되지 맙시다.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지 맙시다.

1978년을 결산하는 이 시점에서 죽음의 문턱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새해를 앞에 놓고 뜻있게 새해를 맞이하도록 합시다. 그러려면 과거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써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로 결재를 받으시고 새해의 예산편성은 무상한 인생을 근거하지 맙시다. 무상한 인생을 목적으로 하지 맙시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겸손함과 담대함과 조심성있게 예산편성을 하시어 하나님 앞에 결재를 받아 들고 새해의 첫 발걸음을 출발합시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꿈에도 교만하지 말고, 나보다 나으신 분을 섬기면서 받들어 드리고, 나보다 약자·후배를 키우면서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봅시다. 또 우리는 꿈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자세만 가지고 복받을 그릇을 준비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세계를 향하여는 복음을 주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면서 아름다운 설계를 그리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영육의 승리자로서, 성공자로서, 복받는 개인, 복받는 가정, 복받는 우리교회, 복받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디오 방송 설교 안내

매주일 3부예배 실황

—음파를 타고 가는 복음—

아세아방송 1570kHz

매주일 저녁 7시 15분부터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표준

김 하 진 목사

(부목사·성가부 지도)

물음/예언이란 무엇이며 그 예언이 지금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이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자신에게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예언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나비」라 하는데 이 말은 선지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보다 분명한 뜻은 영어의 프로페트(Prophet)이란 말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앞에”, “대신으로”란 말과, “이야기한다”는 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이 말의 뜻은 “앞서 말하는 사람” 혹은 “대신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즉 예언자는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알고 말하는 사람이다. 그 무엇을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고, 또한 어떤 사실에서 연역해서, 혹은 귀납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에 대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영의 귀로 들어서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언자는 어떤 행전에 대해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러한 예언이 오늘날은 어떻게 존재하며 또 나타나고 있을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실상 예언자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어떤 특별한 사건을 예고하므로(행11:28, 21:11) 신약 교회의 기초를 이루었던(엡2:20, 고전12:28) 계시사역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대신 오늘날에는 예언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설교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언자와 같이 하나님의 대리자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때문이다.

그 옛날 선지자를 통해 나타났던 예언이 건덕, 권면, 안위를 그 기능으로 하고(고전14:3) 오늘날 설교도 그 기능면에 있어서 또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예언자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초자연적으로 그에게 찾아왔으나, 설교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성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설교자는 초자연적으로 나타난 말씀을 지키고 전하는 청지기이다. 또한 설교자는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 교회에 입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다(고전4:1,2, 딤후1:7). 뿐만 아니라 설교자는 기독교의 터를 닦는 자가 아니고, 사도와 선지자가 닦아 놓은 터(고전3:10-11), 곧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설명(성경)을 근거하여 교회를 세우는 자인 것이다.

설교자는 ①말기운 터와 자재 곧 성경을 그대로

보수할 책임이 있고, ②또한 그 터와 그 자재를 가지고 집지울(교회세울)책임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교회에도 옛날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주셨던 예언이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예언이알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오늘날에는 없고 다만 그와 같은 기능을 가진 설교가 있을 뿐이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는가?

만일 어떤 예언이 있다고 할 경우 그 예언이 맞지 않을 때에는 그것을 배척하기가 어렵진 않다. 그러나 어떤 예언이 그 어떤 사실과 부합할 때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받아들여도 무방할까? 아니다.

이와같은 경우에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만약 그럴 경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어나게 되고 시대에 따라 별질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예언으로 단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불변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동일한 예언이 있을 수가 없다.

어떤 예언이 맞는 것 같아도 받아들여서는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① 그 예언이 맞아도 그것이 거짓된 예언일 수 있다(신13:2).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요일4:1) 확실히 영들을 시험하며 지나보아야 한다. 그것을 시험하며 지나보는 일이 오랜 세월이 걸릴 수도 있으나 신자가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시험하는 것이 오히려 경건한행동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좇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신13:1-3)고 하였다.

② 사단의 사자도 복음을 높이는 체하며(행16:16-17) 또한 도덕이 있게 사람을 대할 수도 있다(고후11:14-15, 마7:15)

이렇게 현대의 예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시험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옛날 선지자나 사도 등을 통해 주셨던 그런 예언은 다시 없으며, 그 후사인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임을 알아야 하겠다.



성탄캐롤의 유래와 내용

김 하 진 목사

(부목사, 성가대 지도)

해마다 성탄이 가까와 음을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크리스마스 캐롤이라 하겠다. 그런데 금년에도 성탄 캐롤은 즐겨 부르게 되었는데도 언제부터 대중들의 입을 통해 불려지게 되었는지 그 유래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잘 모르는 형편이다. 그렇다고 구태여 꼭 알고 불려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부른다면 보다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1. 성탄 캐롤의 유래

1) 캐롤(Carol)의 정의

캐롤이란 주로 그 성격이 대중적이며 기쁜 노래형을 말한다.

요한·줄리안은 말하기를 “본래 무용을 반주하는 기쁨의 노래”라고 했는데, 이 정의는 주로 초기의 유래를 다루는 역사적 견해인 듯 하다. 그런데 대다수의 권위자에 의하면 캐롤은 영국의 공헌으로 보며 적어도 15세기 중엽에서부터 번성했던 것으로 본다.

어떤 이는 이 캐롤을 “균일한 절로 작곡되고 후렴을 가지고 있는 어떤 주제로 된 노래”라 정의했는데, 후렴은 반복구(refrain) 형식을 취하거나 혹은 그 절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특히 16세기 중엽부터는 민중적인 크리스마스 노래를 의미하게 되었으므로 “크리스마스에 야외에서 불리는 찬송의 노래”라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성탄절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캐롤은 즐거운 성격을 띤 민중적인 종교적 계절의 노래라 할 수 있는데 주로 성탄을 축하하기 위하여 즐겁게 부르는 민요조의 축하를 총칭한 명칭이라 본다.

2. 성탄 캐롤의 유래

원칙적으로 기독교 축제일에 교회당 밖에서 부르는 종교적 민중가곡인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확실치는 않으나 아마 중세기부터라 생각된다. 이때부터 불려지던 캐롤은 그후 잠시 중단되었다가 19세기부터 다시 부활되었다. 지금은 각국에서 다 부르고 있으나 그 당시에는 영국에서 가장 많이 성행하고 있었다.

중세 프랑스에서도 캐롤에 춤과, 춤을 위한 노래가 있었으나 춤은 없어지고 노래만 남았는데, 이것은 노엘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옛날에는 성탄절뿐만 아니라 축제일과 그 후에 학생들이 집집마다 부르고 다녔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성행하던 새벽송도 아마 여기에서 유래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러나 점점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져 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맨 처음 캐롤이 불려질 때는 음유 시인 하나가 노래를 부르던 각 소집이 끝날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후렴들을 제창하곤 했었다. 그러다가 선교사들이 이어 오면서 새로운 노래와 그 지방의 옛 노래를 인용

하여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캐롤이다.

그러나 성탄 캐롤을 부르는 관습은 벌써 13세기에 시작되었다. 그후 아씨의 성·프란시스는 자기 교회의 작은 부속 건물 주위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 놓고 민요를 부르게 했던 것부터다.

2. 성탄 캐롤의 내용

성탄 캐롤은 그 내용이 다양하고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자세한 내용을 이 지면에 소개하기는 어렵다. 그저 우리가 흔히 성탄때 부르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런데 캐롤은 세속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 두 가지가 있다.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으나 불어와 라틴어가 사로된 예도 많이 있다.

현재 성탄 캐롤이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에서 부르는 성탄용 민중적 종교가 전체를 포함하는데, 현존하는 최고의 것은 영국의 15세기 것이다. 이 당시 캐롤은 2성 또는 3성의 민요합창이었다. 지금은 캐롤이라고 하면 성탄때에만 불리우는 노래로 생각하나 이 시대의 캐롤은 성탄때에만 국한하지 않고 부활절에 부르는 캐롤도 있었고 심지어는 정치적인 캐롤도 있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으나 미사나 예배시에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민요와 같이 교회밖에 서 불리우는 노래였던 것이다. 예를들면 100년 전쟁중의 헨리 15세가 불란서 군을 격파한 승리의 이 노래인 “하나님여! 승리를 감사합시다.” 라고 한 영어, 라틴 어 등이 혼합되어 불려진 것 역시 하나의 캐롤이다.

그 후 교회 합창을 성가로도 많은 캐롤이 작곡되어 영국 왕실 합창단에서 많이 애창되었다. 또한 르네상스의 이태리와 스페인의 종교음악을 높은 위치에 이끌었으며 이로 인한 르네상스 독일음악이 오늘날 교회음악에 크게 공헌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또는 즐겨 부르는 성탄 캐롤 가운데 하나만 그 탄생과정을 소개하고 끝 맺으려 한다. 즉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인데, 1818년 성탄 전날 밤이었다. 오스트리아의 오베른 돌프라는 한 작은 마을에 조셉·모어라는 신부가 있었다. 성탄을 축하하기 위한 성도들이 이브에 한 30여명 정도가 모였는데 마침 오르간이 고장나 있었다. 그는 성가대를 위하여 노래 가사를 작사하게 되었고, 이것을 그 당시 이웃 마을 음악교사이면서 이 마을 교회의 오르간이스트로 있던 그루버가 곡을 붙여 기타 반주로 이 세 노래를 부르게 되었던 것이다. 조용하면서도 은은하게 울려 퍼진 이 캐롤이야말로 그날 모였던 사람들의 심령 깊숙히 파고 들었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의하여 불려질 뿐 아니라 큰 감명을 주는 곡이 되었다.



색연필

박 종 구 장로

(동화작가 · 시인)

벌써 다섯장째입니다.

선생님 얼굴을 곰보로 만들어 놓고 긴 수염을 붙이더니 이번에는 이마에 '수박'이라고 이름표를 붙이지 않겠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인아가 옥진이를 말렸습니다.

"선생님을 그렇게 해서 되니?"

"체, 그런 수박이 다 된데."

"수박이 뭐야?"

"수박이 수박이지 뭐."

정말이지 옥진이 반 담임선생님은 근사하게 수박을 닮았습니다. 지난 칠월 남교에서 우리 학교로 오시던 날 강단에서 인사말씀을 하실 때입니다. 옥진 이네 반 애들은 둥근 얼굴에 둥근 파마, 그리고 작달막한 키에 달랑수박색 스커트를 입은 이 선생님을 '수박'이라고 부르자는 데 모두 같은 눈짓을 했으니까요.

"옥진이 네가 잘못했지 않아?"

"내가 뭘 잘못했어?"

"숙제를 안해 갔으니까 말야."

"체, 정화는 해왔는데?"

인아는 한 마디 더 하려다 말고 꼭 참아버리는 시늉을 했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했나 봐요. 그 일이라면 나도 필통 속에서 지켜보아 잘 알고 있답니다.

선생님이 숙제 안해 온 사람 일어서라고 했을 때 정화도 옥진이랑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옥진이란 손뼉을 두개나 맞았습니다. 몇장이 정화는 선생님의 파주고 자기만 패린다고 토라져 뺨뽀이 난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전 너무합니다. 하필이면 옥진이 화풀이에 내가 붙잡힐게 뭐예요. 끝보를 만드느라고 쿵쿵 방아질을 하는건 딱 질색입니다.

"에잇, 이것도 몽당연필이 다 되었어."

심술이 나 옥진이가 나를 집어 칠판 밖으로 던지는 바람에 하마터면 물에 부딪칠 뻔했습니다.

나는 슬그머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심술꾸러기 옥진이를 좀 끌려줄 맘이 생겼습니다. 포르르 가랑잎 속으로 가서 숨어버렸습니다. 옥진이가 아무리 불려도 나가지 않고 약을 올려 취하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었습니다.

한때, 나의 이런 꿈한 꿈은 너무 성급게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해님은 벌써 자기 집에 가서 저녁밥을 먹었을 텐데 옥진이한테서는 잠잠소식이니 내

계산이 틀렸지 뭐니까.

단풍잎 속에서 달달 떨면서 귀를 기울이고 있던 나는 마침내 두 주먹을 단단히 쥐고 나왔습니다. 갈 곳이 정해 있지 않는 나는 그저 종종걸음을 하고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리에는 세타를 입은 아줌마들이 바삐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저씨들의 구두소리도 오늘밤 따라 어쩐지 빠르게만 들려왔습니다. 가끔 마른 일들이 시궁창으로 밀려가는 소리는 소름이 끼치도록 싫었습니다.

이발소 옆을 조금 지나서 세탁소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아서 참 심심했습니다. 이때 비도 문방구점에 있을 땐 제법 귀염을 받았는데 거리로 나오니까 본체만체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개에게 들킬까 봐서 가만가만 발소리를 죽이며 걸어야 한다는 것쯤은 압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된 일일까요? 길이 막혀버렸으니 말입니다. 큰 대문이 길을 턱 막고 있지 않겠어요? 다시 걸어나와야겠다고 막 돌아서려는데

"나는 빨강."

"나는 노랑."

하는 옥진이 또래들의 말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대문으로 바싹 다가서서 귀를 뚫고 세웠습니다.

"너건 참 예쁘다."

"아니야 너건 정말 싹타갈구나."

두번째 말한 애는 어디서 자주 들던 음성 같았습니다. 나는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살짝 대문 틈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살금살금 걸어서 가만가만 마루로 올라가 문틈으로 마약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누가 덜컥 문을 밀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만 벌떡 나자빠졌습니다. 보기 좋게 이마를 얻어맞고 궁둥방아까지 찡이지 뵈니까.

"무슨 색연필.....?"

문을 열고 나오던 빨강 세타는 아직 이마를 문지르며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나를 땀방울 집어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난 부끄러워서 별로 아프지도 않는 이마를 만지작거리는 시늉을 하면서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전

“예수님은 우리들의 친구로 오셨대. 세상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늘 나라의 칭찬을 받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나도 귀여워해 주실까?”

등이 환히 밝은게 더욱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습니
 다.

“금아 너꺼니?”

“아니? 내전 필통에 있는데?”

금아란 말에 내 귀가 번쩍 떠었습니다. 가렸던 손을 슬그머니 비키며 가웃이 보았습니다. 금아였습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칠하고 있는 책상 위를 걸논질하여 보았습니다. 초라한 마룻간에는 아기 예수를 안고 마리아와 요셉이 있고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몰약과 유혈을 아기 예수님께 드려 절하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마룻간 위에는 큰 별이 빛나고 있었으며 멀리서는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보낼거니?”

빨간 세타가 물었습니다.

“경희한테, 금아 넌?”

“옥진이한테 줄거야?”

“참, 옥진인 왜 오늘 저녁에 안 왔을까?”

“글쎄 아마 낮에 선생님한테 맞아서 안 왔나봐.”

“그럼, 내일 밤엔 올까?”

“내일 학교에서 같이 오지 뭐.”

나는 가슴이 뚱뚱거렸습니다. 내일 옥진이가 오면 어쩌나 싶어서였습니다.

“금아 잘 자.”

벽에 걸려 있는 큰 시계가 아홉시를 치고 나자 빨간 세타는 크레파스를 챙겨 들고 나갔습니다.

“내일 또 와.”

금아도 그리던 카드를 책상 위에 놓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튿날은 하얀 함박눈이 마른 가지마다 솟꽃을 피웠습니다.

금아가 학교에 가버린 낮시간은 참 심심했습니다. 사방 연속무늬가 사이좋은 천정을 한참 쳐다보다가 또 나는 심심해졌습니다.

—다시 문방구점으로 가버릴까?……. 아니다. 이젠 빨간 치마랑 파랑 저고리가 이렇게 짧아졌는데……. 그럼 어데로 갈까?

이런 생각에 잠겨 있다 보니 벽시계가 세번 종을 치자 떠적하고 대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와.”

금아 뒤에 따라들어온 애는 옥진이었습니다. 나는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금아는 어제밤 그려둔 크리스마스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야, 썩 잘 그렸구나.”

“이건 특별히 옥진이를 위해서 그린 거야. 예수님은 우리들의 친구로 오셨대. 세상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칭찬을 받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나도 귀여워해 주실까?”

“그럼 누구든지 교회에 나오면 사랑해 주시고 또 착한 아이가 된대. 교회 나랑같이 가자 응? 그리고 넌 더 예쁜 카드 그려줘야 해?”

“참, 난 색연필이 도망갔어”

“색연필?”

“응.”

“어메다 뵈는데?”

“방에 두었는데 어메로 가버렸지 뭐야.”

‘피이——’ 하고 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고 창밖으로 뽕개친건 누군데 저렇게 시침일 뻔까?

“이거 아냐?”

금아는 책상 위에서 웃음을 참고 있는 나를 집어서 옥진이 앞에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옥진이가 찬찬히 보더니만

“아니 이거 어데서 났어?”

하며 눈을 동그랗게 하고 반가워했습니다.

“가져가서 그려.”

“그럼 내일 만나자.”

나는 옥진이와 함께 오면서도 걱정이 듭니다. 또 지난 번처럼 실은 일이나 하면 큰 일이 아닙니까.

집에 온 옥진이는 큰 전나무를 도화지 위에 그렸습니다. 색연필로 별을 그리고, 방울을 그리고, 나팔을 붙이고 하여 참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옥진이는 카드에 파란 불펜으로 눌러 썼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즐거운 크리스마스

미운 마음은 달아나고

새 마음이 왔어요.

예수님 마음은 밝은 마음

착한 아이 맘속에 늘 계시요.

예수님이 오신 기쁜 소식

메리 크리스마스」

옥진이가 가끔 나를 쳐다보고 썩 웃으면 나도 빙그레 웃어주었습니다.

어메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이 가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

말씀의 신비



“제 십 일년 삼월 초 일일에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에스겔 31:1)

에스겔서 전체의 특징을 보면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언급되어 있다. 일자가 있고 내게 임하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면 1:1-3, 6:1, 7:1, 31, 13:1, 15:1, 16:1, 17:1, 18:1, 20:1-2, 21:1, 8, 22:1, 23:1, 36, 24:1, 25:1, 26:1, 27:1, 28:1, 29:1, 30:1, 31:1, 32:1, 이러한 형식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 몇가지 생각할 점이 있다.

I. 말씀이 오는 날자가 기록되어 있음

언제 그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을 볼 때 오늘 우리들도 날마다 성경을 읽는 일이 꼭 필요하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을 때에 특별히 성령의 조명에 의해 은혜되는 구절이 내 영혼에 와 닿을 때가 있다. 1969년 1월 1일 수요일, 매일 성경 읽는 차례대로 말씀을 읽던 중 뜻기 1장 15~18절의 말씀 중에 뜻이 어머니를 따르기를 굳게 결심한 구절에 큰 은혜를 받고 그날 저녁에배매 삼애교회에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여 함께 큰 은혜를 받고 그 사실을 기록해 둔 일이 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날자를 기억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함을 깨달았다. 우리가 많은 날들을 보내지만 말씀이 없는 매일을 보내는 것은 너무나 무의미한 것이다. 성경을 일년에 한번 읽는 일 없이 한해를 보내고 또 한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너무나 생의 낭비처럼 보여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저희 교회에서 만든 성경읽기 카드는 하루 3장, 주일 5장 읽으면 일년에 일독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전국교회에 계속 공급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로 부터 즐거운 간증을 받고 있다.

오늘이라 하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루를 보내다니 너무나 값비싼 사치가 아니겠는가?

나는 지금도 심방할 때 내가 읽는 성경을 그 가정들에게 차례로 보여 주고 주보에서 보고해 주는 일이 있다. 지난 11월 12일 주일 주보란에 8구 대심방 결과가 이렇게 기재되어 있었다.

음기9:10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출발에배
음기10:10-12, 생명과 은혜의 축복.....홍광수

김진택 목사

(한성교회 당회장)

- 11:10-20 소망이 있는 삶.....문명원
- 12:12-14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김진홍
- 13:20-22 하나님과의 교제.....김영희
- 14:1-13,15, 아끼시는 하나님.....최인순
- 15:11 하나님의 위로.....고혜영
- 16:16-22 정결한 기도.....안옥선
- 17:9 점점 힘을 얻는 길.....김덕보

II. 여호와와 말씀이 임함

에스겔이 날자를 기록하고 받은 말씀은 여호와와 말씀이다. 에스겔은 여호와와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존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통해, 지금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 이미 세상을 떠나신 신학의 거두이신 박형룡 박사님의 교의신학 서론에 이런 말이 있다.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 말씀의적용을 속행하고 있다.

하나님은 성경을 방편으로 하여 자기의 계시를 부절히 세계에 전달하시며 그것의 내용을 사람의 사상과 생활에 실현시키신다. 성경은 오랜 세월 전에 생긴 이야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계속적인 강론이다.

성경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새로이 듣고 감동을 받는다. 하나님은 성경의 계시를 방편으로 하여 죄인들을 실유(實有)와 의식(意識), 아울러 간단 없이 갱신하신다.

성경은 교회의 확장과 지휘, 성도들의 완성, 그리스도의 신체의 건성(建性)을 위한 성령의 중요 기구로 작용한다. 이것은 하늘과 땅,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하나님과 그 백성사이에 영구한 연합의 결속물들이다.

성경이 이같은 직접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될 수 있는 초자연적 초인생적 작용을 계속하고 있으니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상의 글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묵회를 하면 할수록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너무나 뼈에 사무치도록 체험케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성경을 주석하지는 박윤선 박사의 교훈도 감사히 받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앙에 입각한 주경이기 때문에 그 해석에 진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생명이 약동함을 느끼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루가 얼마나 무의미 하고 공허한 나날이겠는가? 이단들이 날뛰고 세속화의 물결이 노도와 같이 교회를 향해 밀려 오고 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날마다 뜨겁게 체험하는 구체적인 삶이 필요하리라 본다.”

성경말씀을 매일 규칙적으로 읽는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음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다.

박윤선 박사님은 그의 역사서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귀한 간증을 하신 것을 볼 수 있다.

“내가 잊을 수 없는 일들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평북 선천 수청고개 아래벧가를 산책하다가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었다. 그 때에 내 마음속에 똑똑하게 일어나는 생각은 “내 손에 있는 성경의 내용을 비게 말씀으로 주신 이가 하나님이다”란 것이었다. 그때에 나는 의심을 풀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었다.

(2)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믿음으로만 구원얻는다는 진리를 확신하게 되었다.

(3) 오늘날까지 근 40년동안 성경주석을 집필해 오는 중 언제나 그 일에서 기쁨을 얻으므로 계속하여 일해 왔다.

(4) 주석을 집필하는 동안 병고(病苦)는 당했지만 투병은 거의 없었으므로 계속 독서하며 연구할 수 있었다.

(5) 성경중에 난제를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이 틀렸을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반드시 해결된다고 믿어졌다. 그때마다 그 난제는 해결되었고 내 영혼은 더욱 힘을 얻었다.

(6) 성경을 해석할 때에 어떤 말씀은 문맥이 통하지 않고 뒷말과 앞말이 서로 연락이 없는 것 같았으나 깊이 연구하는 중 거기에 연관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7) 성경을 연구할수록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더욱 확신케 된다.

(8) 특별히 용기에 대한 연구는 4년동안 하였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발표한 용의 모든 인사들은 원망이 아니고 그의 신앙이라는 것이다.

(9) 38년간의 교수생활에 있어서 주님께서 항상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에 늘 즐거움이 있었고 교안을 작성할 때마다 주님께서 확신을 주셨으므로 언제나 교수에 의욕이 넘쳤다.

(10) 서원 문제로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때에도 성경말씀을 깨달음으로 곧 마음이 평안해진다. 성경만이 나에게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준다. 갑갑하고 답답하다가도 성경을 연구하여 설교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하고 기쁘다.

III. 내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임

여호와와 말씀이 구체적인 역사적인 실존인물인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한 것마다 그 말씀으로 그는 소명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여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해 나간 것이다.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말씀은 그 민족에 대한 경고, 위로, 예언명령의 말씀으로 임하기도 했다. 신약에는 생명의 말씀(행5:20), 은혜의 말씀(행20:32), 구원의 말씀(행13:26), 진리의 말씀(엡1:13), 화목케 하는 말씀(고후5:18), 십자가의 말씀(도(고전 1:18), 복음의 말씀(행8:4)으로 내게 임해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구체적인 인간에게 임하진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사실인지 모르겠다.

우리는 비록 평신도들일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으로 임할 수 있다.

시119:18,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119:105,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119:9,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시119:103,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시119:49-50,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중에 위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이 여러 구절들을 보니 성경은 개인적인 체험의 사실을 많이 말하고 있다. “내 눈” “내 발” “내 입” “나를 살림”으로 표현되어 있다.

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체험이다. 목회 경험상 교인들의 영적 양성은 저들의 매일의 성경독상 기도 봉사에서 오는 것임을 깨달을 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매일 성경예독을 하여야 되겠다는 신념때문에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기회와 장소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루가 얼마나 무의미하고 공허한 나날이겠는가? 이단들이 날뛰고 세속화의 물결이 노도와 같이 교회를 향해 밀려 오고 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날마다 뜨겁게 체험하는 구체적인 삶이 필요하리라 본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임 정 우 선생

(고등부 교사)

“하나님의 미려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전 1:25).

새해의 계획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 금년을 반성해 볼 때 너무나 부끄럽기 그지없다. 금년의 부끄러움으로 내년의 계획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 믿으면서 교사 자신들을 생각하고 있다.

인간은 너무나도 어리석으며 교사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생활해야 함이 마땅하리라고 본다. 일전에 매일 도서관과 같이 들고 다니던 브리차 병목을 소제하게 되어 여러 방법으로 깨끗케 하려 하였으나 구석진 부분의 더러움은 닦아낼 방법이 없었다. 때마침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오셔서 그 광경을 보시더니 제란 껍질을 잘게 부셔서 넣고 흔들면 씻어 진다고 해서 그렇게 하였더니 병이 깨끗해졌다. 열에 있던 제란을 보고도 방법을 몰라서 못한 것을 보면 역시 사람들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것이구나 하며 스스로 자신의 어리석음과 부족을 느껴 보았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며 더구나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잘 알고 있는가?는 좀 생각해 보아야겠다. 특히 주교 교사로서는 말씀의 지식을 먼저 갖추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명년을 위해 몇가지 피력해 보고자 한다.

첫째, 내년 주일부터 마지막 주일까지 하루같이 꾸준히 교사의 직분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생각하여 열심히 일해야 하겠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니 숨어서 하나님만 기쁘게 일을 많이 해야겠다. 성심껏 맡겨 준 생명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말이다.

둘째,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낯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중한 일 맡겨 주셨으니 감사하고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귀한 일로 알고 두려워

하면서 조심스럽게 감당해야겠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면서 맡겨 준 생명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적절히 공급해 줄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 지식도 넓혀 더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다.

특히 우리 교회의 도서관에 많은 책들이 있으니 그 책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선물로 알고 애용하며 사랑해야겠다. 주일날 1시간 정도의 시간이라도 조용한 마음으로 도서관에서 영의 양식을 위한 공부를 해야되지 않을까?

세째는 교회생활과 옛새동안 일터에서 거리에서 가정에서 하는 생활이 같도록 행동을 하며 살아야겠다. 내 생활이 바로 가르치는 것이 되므로 생활의 모범을 보여야겠다. 교사들의 경우 옛새동안 세상일에 바빠 움직이다가 주일 아침 교회오는 차속에서 공과준비를 하는 교사도 있을 것이다. 영혼을 위하는 일이라면 1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해야 함이 당연치 않을까? 그래서 명년부터는 매일 말씀을 상고하며 순간 순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주교 교사들은 집을 짓는 자들이다. 꼭 필요한 물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다른 데서 헛수고 하는 불쌍한 자가 되지 말고 더 나아가 중요한 물을 멀리 버리는 자가 되지 않아야겠다. 나에게 맡겨 준 생명이 모퉁이 돌이 되실까? 아니면 고마운 일일까?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고 평범하고 숨은 천국일꾼이 된 후에 서로를 위해 일하며 하나님이 위하시는 천국일꾼을 바로 키워보자. 말 없는 가운데 나를 본받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주교 교사는 명심하여 명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사가 되었으면 한다.

“외식하는 자들이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 내어 이르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 하느냐?(눅 13:15).

복된 성탄을 맞아

해외에 있는, 군에 있는 출타중인

모든 곳에 있는 우리 총현의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978. 성탄

월간총현 편집실

시편에서 주는

주간의 만나

시 53:1-4

인생이 죄에 빠지는 이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땅 위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를 범할 수 없다는 참 경건한 자가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충성하는 자는 찾기가 힘들고 오히려 거짓말로 성공의 방편을 삼는 자, 세력을 가진 자에게 아첨하고, 약하고 가난하고 선하고 정직한 자는 억누르고 잡아먹는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마음놓고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속과 것이 다른 가증한 자들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죄악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인간이 어리석기 때문입니다(1절).

여기어 어리석다는 말은 글을 배우지 못하여 무식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지혜의 근본인데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는 자기만이 가장 잘 알고 자기만이 가장 강하고, 가장 위대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한심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첫째 저희는 부패한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썩은 나무는 재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집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썩은 물건은 악취가 나고 굴이 생기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은 비참한 자리에 빠지고 맙니다.

둘째, 소행이 가증하다고 했습니다. 가증하다는 말은 못나고도 잘난 척하는 자, 더러우면서도 가장 깨끗한 것처럼 덤비는 자, 아무 힘이 없으면서도 가장 힘이 있는 것처럼 날뛰고, 가장 약하면서도 가장 선한 것처럼 가장하고, 가장 반역자이면서 가장 충성스러운자인 것처럼 꾸미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불꽃같은 눈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1절 후반절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선에는 아랫사람이 웃사람에 대한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웃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한 선이 있습니다. 또 신자가 하나님에게 해야 할 선이 있습니다. 아랫사람이 웃사람에 대한 선은 웃사람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아랫사람의 선입니다. 웃사람으로서 아랫사람에 대한 선은 아랫사람을 볼듬어 주고 사랑하는 것이 선입니다.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신자가 해야 할 선입니다. 이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하

었습니다. 선을 행할 마음조차 먹지 않고 있습니다. 선을 행할 마음을 가졌다고 해도 선을 행할 실력이 없습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살펴보신즉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지각있는 자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각이 없는 자는 마치 목자의 품을 떠난 양과 같습니다. 지각이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 아니라 악마를 따라잡니다. 이런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하였습니다. 또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행실로는 딴 짓을 하는 자가 지각 없는 자입니다. 간판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습니다. 물질을 믿고 혹은 지식 혹은 권세를 믿는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다 해도 성경의 법대로 찾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자기 제 마음대로 물러가는 자는 빛되신 하나님을 떠나가니 어두움에 빠지게 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니 죽음에 이르게 되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떠나니 어리석은 자가 되고 권능의 하나님을 떠나니 연약한 자가 되고 천지의 주인 하나님을 떠나니 지옥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범죄하는 자가 무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시 53:5-6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고로 내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도다』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알고도 잊어버리고 함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함부로 덤비는 자는 교만한 자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열가지 재앙이 내려진 것처럼 보내주고 또 다시 마음이 강박하여져서 뒤따라 가다가 홍해에 강지낸바 된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는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날이 성도들에게는 최대의 기쁜 날이요, 간치의 날이 되지만 그러나 저들에게는 “산아 나를 가리워라. 언덕아 나를 덮으라” 하며 벌벌 떠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친히 손을 펴서 구원하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포로된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병든 자리에서 그리고 위험한 자리에서 또 억울한 자리에서 구원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원고는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를 출판위원회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78년도 해외선교 결산

해외선교에 새로운 활력소를

오 배 용 집사

(월간충현 간사)

충현교회가 해외선교의 문을 연지 10주년이 되는 올해는 황무지 같은 한국의 해외선교에 새로운 활력소를 공급한 의의깊은 해였던 것 같다. 더욱이 우리 교회로서는 마치 오지의 개척자 같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노력하고 땀 흘려 해외선교라는 대사업에 본체도에 울려 놓을 수 있었던 기록해 둘 만한 한 해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리라. 지난 1년간의 사업을 정리하고 「도약」을 위한 계획을 알아 본다.

제 1 회 충현선교대회

무엇보다도 금년은 해외선교를 총지휘하는 선교본부 가 제자리를 잡았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었다. 지금까지는 주력구구식의 시행착오를 많이 범했는데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경험으로 삼아 보다 고체적이고 효과적인 선교사업의 경영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4월 25일부터 6 일간에 걸쳐 「제 1 회 충현 선교 대회」를 가졌다. 10년간의 선교사업을 정리하고 80년대를 향한 새로운 발판을 구축하고자 함이었다. 그 결과 ① 우리 교회내에서 선교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었다. ② 선교본부 자체에서도 정리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③ 현지 선교사들에게 음양으로 영향을 끼쳐 선교에 관한 뚜렷한 비전과 뜨거운 열정, 그리고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고 실천하게 하였다. ④ 대외적으로는 우리 교단에도 영향을 끼쳐 총신 신학생들에게 선교사상을 고취시켰다. 이번 대회가 학구적인 선교 모임이었던 데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던 것이다. 다음 제 2 회 대회에서는 선교의 이론적 배경을 학구적으로 다루는 기회로 삼는게 바람직할 것 같다.

열매 거두는 인도네시아 선교

한국의 해외선교 사상 처음으로 피선교지에 선교관을 건립했던 인도네시아는 정글선교라는 특수한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만주 선교사의 신념있는 선교철학과 무쇠 같은 활동이 뒷받침되어 확고한 선교기반을 구축해 놓게 되었다. 선교 본부는 자카르타에 두고 8 개 지역을 개척하여 원주민으로 책임자를 세운 다음 그에게 장학금을 주어 신학 훈련을 시켜 복음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 그 옛날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때마다 결신자를 얻고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 부흥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원주민 선교는 현지인의 열성있는 전도로 각 지역마다 결신자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로부터 활동 보고를 받고 그에 따라 본부에서는 필요한 곳에 순회 전도를 나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문제로서는 우선 인원이 더 많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과 여기서는 티임이 구성되어야 선교활동이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

급한 일도 획기적인 사업 중 하나이다.

홍콩—국제관문에서 다져가는 대륙선교의 발판

대륙선교의 전진기지인 홍콩 한인교회는 명실상부하게 그 위치를 확보해 가고 있는 듯이 보인다. 작년에는 교회의 내적 충실에 노력하였으며 금년부터는 선교에 눈을 뜨도록 지도하여 200여명의 교인들이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되었다. 아울러 외적으로 많은 대륙선교 단체들과 교제하며 지면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최근 들어 중공 당국이 성경 반입을 거의 허용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어 번역 성경을 보급 지원하고 있다. 현재의 추세라면 언제 대륙선교의 문이 열릴지는 시간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가는데 바람직하리라 본다.

아직 갓난아이 같은 서독 선교

선교지가 유럽의 중심지요 경제 대국이며서 가장 선교하기 힘든 곳이 여기인 것 같다. 우선 활동의 주무기인 언어의 장벽 때문에 부딪치는 어려움이 많다. 또 한국 교포들이 물질적 풍요의 분위기에 휩싸여 신앙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하는 경향이 심하다. 이러한 외적 여건 가운데서도 비스바덴 한인교회는 금년부터 안정기에 들어가 착실한 부흥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12일로 창립 1주년을 맞은 한인교회는 1 지역을 더 개척하여 비르츠부르크에 또 한인교회를 설립하였다. 적은 수이지만 평신도 수양회를 자주 열어 신앙의 향상을 꾀하고 있는게 특징 중 하나이다.

아직도 구름이 끼어있는 애굽 선교

제일 큰 문제가 아직도 미정확 상태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애굽의 특이한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상황 때문에 우리 같이 어색한 국가적 배경과 가난한 선교비 사정으로 건너가야 할 강이 많은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연호 선교사는 굳은 각오로 아랍어를 수학하는 일방 애굽 장로회 총회 신학교에서 강의를 담당하여 현지 교제 지도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고 있다. 또 애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성경상의 지명과 지역을 답사 여행하면서 교인들에게 산 교육을 시키고 있다. 한가지 다행스런 일은 사모가 도서관 직원으로 정식 채용되어 거주허가가 곧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세계 여러나라에서 선교불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애굽에 물려들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기왕에 담아 놓은 터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많은 기도과 물질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는 일본 선교

아시아의 이단자 같은 일본에서 한국인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힘든 일종의 힘든 일이다. 경제적 우월감

이 복음적 우월감을 대신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망국적 상황에서 의사라는 사회적 지위를 신분 활용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평신도 선교사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겠다. 유병세 평신도 선교사는 틈나는대로 환자 전도, 병원 직원 전도, 노방 전도, 축호 전도, 대합실 전도 등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결신자도 많이 얻고 있다. 의사라는 지위가 높기 때문에 대우를 받으면서 전도하는데 그 권위가 목사보다 더할 정도이다.

한편 대외 협력 관계도 활발하여 미국 메노나이트 교단 소속의 브라사 선교사 대외와 친교를 맺고 같이 협력선교를 하고 있다. 그들은 일본에서 25년 동안 선교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경험적 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도 받은 결신자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 정식 선교사가 복회를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리면 일본 선교는 바람직한 선교지가 될 것이다.

가능성 많은 남미 선교

신동수 집사가 평신도 선교사로 있던 남미의 아르헨티나는 그의 체류기간 만료로 귀국했기 때문에 현재로선 선교사가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 재아중앙교회에 담임목사가 공석 중 본교회에 교역자요청을 하고 있는

데 빨리 손을 써서 교역자를 파송하면 굉장한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곳이다. 그 교회는 우리 교단 소속으로 남미에서는 가장 튼튼한 교회라고 한다. 이곳을 중심으로 전방 밝은 남미 이민 정책에 따라 교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원주민 선교선타로 하면 어느 지역 못지 않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곳으로 전망한다.

문 제 점

첫째 선교사 훈련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선교지의 확장에 따라 유능한 선교사의 요구가 증대될 터인데 그에 대비해서 선교사 적임자를 발굴하여 구체적이고 철저한 훈련을 시켜줘야 하겠다. 이 문제는 내년부터 발족할 선교주일학교와도 관계되는 것인데 좋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유능한 선교사후보를 많이 확보해줘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는 평신도에 대해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선교사업은 일부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교인들이 밀어야 할 사업인 까닭에 매월 선교월보를 발행하고 선교실(Mission Room)을 설치해서 상설 전시관으로 활용하면 선교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1979년도 단기 수련회

성경학원에서는 1979년 단기수련회를 확정 발표했다 매년 실시하는 수련회이지만 금년에는 특별히 다양한

과목과 강사진을 확보했다는 데 특징이 있으며 부흥회는 기도원의 한영철 목사님이 설교하시게 되었다.

구 분	일 자	시 간	교 과 목	강 사	장 소
교 역 자	1. 3(수)	10:00—12:00	당회장 목회방향 제시	김 창 인	새신자부실
		1:00—2:20	현대문명과 교회지도자의 사명(사상면)	손 봉 호	
		2:30—4:00	〃 〃 (과학면)	유 영 흠	
직 원	1. 4(목)	10:00—11:20	직원의 임무	김 재 창	새신자부실
장 로	1. 4(목)	7:00—8:20	현대사회와 장로의 사명(성경적 근거)	김 회 보	새신자부실
제 직 및 권 할	1. 5(금)	7:00—8:10	교회봉사자의 자세	김 회 보	본 당
		8:20—9:30	구역운영과 교회부흥	백 성 통	
부 흥 회	1. 8—10 (월)(수)	7:00—9:00		한 영 철	본 당
교 사	1. 11(목)	7:00—8:10	충현주교교육의 반성과 1979년도 교육목표	정 상 우	본 당
		8:20—9:30	주교교육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임 승 원	
	1. 12(금)	7:00—8:10	성경 교수법	이 순 한	본 당
		8:20—9:30	생활지도와 상담	박 성 수	
성 가 부	1. 11(목)	7:00—8:10	성경강해	김 종 택	대 학 부 실
		8:20—9:30	발성법	김 종 석	
	1. 12(금)	7:00—8:10	한국 교회음악의 좌표	전 회 준	대 학 부 실
		8:20—9:30	충현성가대의 내일을 위한 토의	주 제 발 표 (김하진)	

1200자 찬송

이것이냐 저것이냐

오 태 용

“우리 각 사람은 매일 부딪치는 대소간의 문제들에서 수백가지의 선택을 한다. 바로 그러한 선택에 의해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며, 현재의 우리들 모습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무수한 선택들의 결과이다.”

이 글을 읽으며 우리 인류의 역사는 물론 각 개인의 역사도 어찌던 여러 모양의 선택들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인류 최초의 선택은 화와와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좋은 선물인 자유선택권을 잘못 행사하여 악을 선택함으로써 인류에게 영원한 불행함을 가져다 주었다. 반면 아브라함은 그 유리한 선택권을 못에게 양보했으면서도 결과적으로 좋은 것을 얻었으니 오고오는 모든 인생이 그를 높이 찬양한다.

이러한 결정적인 선택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으니 예를 들면 어느 부흥사의 얘기로, 청년 클리브랜드는 친구와 술집행을 포기하고 부흥회에 참석하기로 결정하여 서로 헤어졌는데 그 갈림길이 하나는 대통령으로 또 하나는 사형수로 운명을 갈라놓았다고 한다.

그런데 한평생 현재의 「나」는 이처럼 무슨 굵적 굵직한 선택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아주 작고 사소한 듯한 일상의 선택들이 모여 이루어놓은 「작품」이 아닐까 싶다.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지 않고는 생존을 할 수가 없다. 선택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선택으로 하루를 마치며 나아가 일생을 마친다. 순간적인 선택을 잘 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고 자칫 잘못 선택하여 후회하게 되는 일이 너무도 흔하다. 결국 이러한 반복을 통해 나와 우리의 현재가 여기 이러한 모습으로 존재해 있으며 그러한 선택들로 나의 인격은 우리의 삶의 목표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일때 어떻게 하면 이 필연의 선택을 최상의 것으로 할 수 있을까? 신자에게로 향한 영원한 물음이다. 먼저 사욕을 버리고 공(公)을 앞세우는 것이 차원 높은 선택은 아닐까? 아니 성령의 참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를 중심한 선택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지.

12월 지나간 1년을 이러한 관점에서 돌아보고 싶다. 나의 일, 우리의 일, 교회의 일 등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선택을 하였는가. 욕심에 끌려 빌라도처럼 바라바를 선택하지는 않았는가. 극악한 고통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로 선택한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의 선택, 그리고 아무리 물질적 명예적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형제와 화목을 위해 기득권을 기꺼이 양보한 아브라함의 선택은 또 얼마나 있었는가. 달력을 넘기기 전 꼭 한번 깊이 생각합시다.

■ 찬송가 감상 ⑩ ■

기쁜 소리 들으니

(새 228, 합 190, 개 257)

김 중 석 강도사

(제이성가대 지휘)

기쁜 소리 들으니

예수 구원 하시네

만민에게 고하게 예수 구원하시네.

기쁜 소식의 전파를 두 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여 초신자가 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초신자가 진리를 배우고 익혀서 영적으로 장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전도하여 초신자를 낳고, 그를 육성시키고, 다시 그로 하여금 초신자를 낳게끔 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초신자를 낳기 위한 설교에 치중하면서 성숙한 교인을 만들기 위한 설교가 부족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성숙한 교인을 만드는데 치중하고 초신자 낳는 일에 부족한 교회가 있습니다.

설교 100주년을 향하여 만교회 운동을 벌이면서 민족복음화가 달성되기를 열망하는 한국교회에 있어 「기쁜소리 들리니……」와 같은 「초신자 낳기 찬송」(전도 찬송)이 많이 불려져야 하겠습니까.

어서 주 명하시니 유목수로 다녀서

은 세상에 기별해 예수 구원하시네.

이 찬송 곡조는 시(詩)에 맞추어 아주 즐거운 곡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힘차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기뻐서 춤을 덩실덩실 추는 광경을 연상케 합니다. 붓점을 처음부터 끝까지 쓰면서 음정이 경쾌중경쾌 뛰게 되어 있습니다.

가사는 브리스길라 오웬(Priscilla J. Owens)양이 지은 것인데 그녀는 평생 교원을 하는 한편 주일학교 일에 헌신적이었습니다. 이 찬송시도 주일학교 전도집회를 위하여 쓴 것이라 합니다. 곡조는 키르크파트릭(W. J. Kirkpatrick)이 편곡한 것인데 원전은 작곡가 마이에르비어(Meyerbeer)가 지은 오페라 「청교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키르크파트릭이 지은 곡은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등 14곡 이상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이 곡을 부를 때 유의할 점은 무거운 맘으로 부르지 말 것입니다. 기쁘게 가볍고 경쾌하게, 앞의 어려움을 생각하는 어두움이 없이 오직 친진한 어린이 심정으로 불러야겠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악보를 보면서 부르는 것보다 외워서 묵상하면서, 부르는 것이 좋겠고, 필요하다면 찬송을 여러번 반복하여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총회교회는 성전건축을 앞에 놓고 기도의 운동과 함께 찬송을 힘있게 부르는 운동도 더욱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 도서 정보.....

도서실은 여러분을 위한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도서실을 신학 및 기독교 관계와 그밖에 많은 서적을 구비하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 탐구를 하도록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11월 중 구입한 도서

I. 신학도서

1. 주석류
1) 칼빈주석; 구약성서주석 창세기 I, 칼빈著. 신교출판사간. 554p. 1978.
2. 성경
1) 성경의 영감과 정경; 해리스, R.L.著. 박종철譯. 한국개혁신학의신행회 271p. 1978.
- 2) 성경해석의 원리; 스테뎃, 노튼著. 한국성서유니온. 179p. 1978.

3. 신 약

- 1) 신약사; 브루스, F.著. 나용화譯. 예수교문서선교회간. 504p. 1978.
- 2) 신약과 비평; 태드, 조지著. 한국개혁신학의신행회 255p. 1978.

4. 조직신학

- 1) 펠름조직신학(신론); 펠름, 루이스著. 고영민譯. 기독교문서간. 406p. 1978.
- 2) 균형잡힌 신앙생활; 라이리, 찰스著. 유화자譯. 생명의 말씀사간. 295p. 1978.

5. 한국교회사

- 1) 한국기독교사; 이영현著. 컨콜디아사간. 426p. 1978.
- 2) 한국민족기독교백년사; 김광수著. 한국교회사연구회간. 175p. 1978.
- 3) 뜻으로 본 한국역사; 함석헌著. 제일출판사간. 423p. 1978.

6. 기독교윤리

- 1) 이혼과 재혼론; 마틴, 존 R.著. 최대준譯. 아가페출판사간. 155p. 1978.

7. 설교학

- 1) 설교연구 시리즈 I; 아담스, J.F.著. 정양숙譯. 예수교문서선교회간. 103p. 1978.

8. 수필집

- 1)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함석헌著. 제일출판사간. 369p. 1978.
- 2) 씨알은 외롭지 않다; 함석헌著. 휘문출판사간. 350p. 1978.
- 3) 길을 묻는 그대에게; 김동길著. 상민사간. 262p. 1978.

II. 기증도서

1. 설교집

- 1) 오늘과 미래를 위한 메아리; 양계성著. 한국기독교교육연구회간. 276p. 1978. <김인석집사증>
- 2)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김장인著. 중현출판사간. 400p. 1978. <중현출판위원회증>

<독서 캠페인>

□ 한달에 책 한권씩 읽읍시다

...신문·잡지 얼마를 읽는 것으로 독서한다고 말...
...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생활에 여념이 없는...
...우리 평신도들로서는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졸...
...체 책을 대하지 못한다는 것이 숨김없는 고백...
...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 머무를 수는 없음...
...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탬이 되는 귀한 책...
...들을 골라서 적어도 한달에 책 한권씩은 꼭 읽...
...는 습관을 키워 가자는 의도에서, 금년에도 우...
...리는 이와같이 캠페인을 벌입니다.「월간중현」...

☆ 추천하고 싶은 책

김 창 인 목사 지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크라운판 400면/양장 3,500원 반양장 3,000원
총판·점음서림(776-7897)/보급·본교회도서실

당회장 김창인 목사의 설교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란 책이 지난 달에 간행되었다. 출판위원장 조현명 장로님은 간행의 글에서 “본교회 설립 25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아울러 김목사의 41년간에 걸친 목회의 노고를 위로하고 은공을 기리는 한편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으로 발간하게 되었다”고 밝혀 주었다.

오늘의 중현교회 발전과 부흥의 배후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다음은... 김목사의 영력있는 설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김목사의 목회 성공의 비결에 대하여, 김목사의 설교를 비교적 많이 듣고 이번에 추천의 글까지 써 주신 주경신학자 박운선 목사님과 총회신학대학장 김희보 목사님도 그 열렬한 복음적인 설교가 뒷받침되어 왔다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시사해 준다.

당회장 김목사의 설교를 직접 육성으로 들을 수 있고, 그 설교를 녹음한 카세트테이프도 들을 수 있다고 해도, 이 설교집은 눈으로 확인하고 머리로 정리하며 읽을 수 있다는 데서 또 다른 큰 의미를 찾는다. 대지에서 소지대로 정연히 기술되어 있어서 이해에 도움이 되어, 다른 각도에서 김목사의 설교를 대하게 된다. 특히 이 책은 주보나 월간중현에서처럼 요약설교가 아닌, 강단에서 외친 그대로 별로 꾸밈이 없이 표현했으므로 기도하고 조용히 읽노라면 그 말씀 속에 동화되어 어느새 힘있고 은혜있는 말씀으로 재생되고 있는 것에 놀란다.

이 책의 내용은 새해에서 성탄과 마지막 주일까지 1년치분이 거의 수록되어 있다. 김목사님이 몸소 겪은 생생한 이야기들이기에, 읽는 이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준다. 본교회에서 편집·제작한 이 설교집은 읽고 나면 각 가정에서 보관용 장서에 좋을 뿐더러, 친구·친척·친지·또 해외에 계신 성도들에게 보내면 문서전도에 참여하는 좋은 기회도 될 것이다.

* 조선근 장로(월간중현 편집위원)



목사님께서 가시게 되어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가는 곳은 호주 빅토리아주에 소속되어 있는 멜버른시입니다. 호주에서 남쪽에 속하고 전에는 수도였던 도시이며 호주는 굉장한 보수주의 사회이지요. 인구는 70~80만명 밖에 안 되며 한국사람이 400여명 된다고 해요. 교회 형편은 한인들이 처음 호주에 가서 교회는 가고 싶으나 말이 통하지 않아 가지 못하여 갈급하고 있다가 호주 선교사가 한국에 나와 한국말을 배워 들어가서 한인교회 예배인도를 시작했지요. 그러나 한국말을 잘 해도 한국사람들과 거리가 머니까 한국목사를 모시고 싶다고 하여 마침 3년전에 그곳에 공부하러 들어간 목사님이 말하 하시게 되었지요. 그 목사님이 금년 12월이 만기가 되어서 나오시게 되므로 그 후임을 구하시게 되었지요.

출국하시는 날짜와 가족사항은?

11월 29일 오후 6시 40분 비행기로 떠납니다. 가족들 모두 같이 떠나지요. 가족사항은 사모님(조남숙)과 2남(성호, 성혁) 1녀(중희)에 큰 애가 중학교 2학년 둘째가 국민학교 6학년 셋째가 국민학교 3학년입니다.

호주는 우리교회에서 새로운 곳인데 거기 가서서 어떻게 해 나가시겠는지 각오에 대한 말씀해 주십시오.

그 교회는 제교회도 없고 장로·집사의 직분도 없어요. 그저 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회 임원이 여섯명 있어요. 금년 5월 18일 초청장을 받아 당회장 목사님께 보고하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인교회 목회를 철저히 하는 것이 첫째 목표이고 그 다음에 선교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곳 한국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갈급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므로 말씀중심으로 목회를 하려 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 가면 호주교회의 협동목사의 직위를 받게 되기 때문에 호주 선교부와 유대를 갖고 일할 수 있게 되지요.

지금 한인교회의 예배는 주일날 한번 밖에 안 보는데 저녁예배와 삼일예배 새벽기도회를 모이도록 시작해 보려 합니다. 그곳에 가서 사정이 어떤지 잘 조사해 보고 자립교회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뉴우기니아나 뉴질랜드에 한인들이 왕래는 하나 한인교회가 없다고 하니 그곳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선교활동을 해 보고자 합니다. 뉴우기니아는 인도네시아령과 오스

말씀중심의 자립교회로 키울터

◇◇◇...유·초등부와 성경학원을 위해 그동안 많으신 수고를 해 주신 김태현 목사님의 호주를 향한 선교 활동에 대해 들어 본다. ◇◇◇

트레일리아령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곳의 한인 상황과 원주민상황을 파악하여 외국인들에 대한 선교활동을 준비하려 합니다.

우리교회에 언제 오셔서 그동안 어떤 일들을 맡고 계셨는지요?

1974년 3월 첫주일부터 일했지요. 충현교회 오기전에 의정부 경민중·상업고등학교에서 일했지요. 처음 새신자부 담임으로 왔으나 유년부를 맡고 계시던 정기성 목사님께서 병석에 누우시므로 첫주부터 유년부를 맡게 되었지요. 1년동안 유년부를 맡으면서 교사들과 개인적으로 가까이 지내지 못해 그 다음해에 익숙해지려 했더니 초등부를 맡으라고 해 초등부를 맡고 또 동종만 목사님이 맡으셨던 성경학원도 맡게 되었지요.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행정적인 면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지요. 그래서 유년부 1년, 초등부 3년을 마치고 금년에는 주일학교를 담당하지 않고 성경학원만 맡아서 일해 왔어요.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님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특별한 것은 없고 그동안 제가 있으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역자와 교인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어요. 주일학교만 맡아 일하다 보니 심방을 못해 교인들을 잘 몰랐어요. 선교사로 가기전에 심방을 좀 하라고 당회장 목사님께서 하셔서 매주 목요일만 심방을 했지요. 그리고 장례식에도 많이 참석했는데 저를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만큼 서로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4년간 같은 교회에 있었는데 피차 모르고 있으니 매우 서글졌어요. 앞으로는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는 것도 필요한 줄 압니다.

그리고 교역자로서 느낀 것은 처음 충현교회에 왔을 때 당회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을 먼저 하지도 말고 뒤로 처지지도 말고 꼭 동역자들과 보조를 맞춰서 하라고 하셨지요. 그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 매우 귀한 말씀이 되었지요. 팀웍이 되어 일을 은혜스럽게 하라고 하신 말씀 떠나는 지금도 깊이 느껴집니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에 임할 때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고 힘을 합해서 협동하며 일을 하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충현의 그리스도 열 심을터

◇◇◇...29일 2시 20분 캐나다로 목회와 선교의 사명을 띄고 떠나시는 정관일 목사님을 모시고 떠나심의 아쉬움을 나누어 보았다. ◇◇◇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얼마동안 계셨으며 계시는 동안 주로 무슨 일을 맡아 보셨는지요.

제가 충현교회에 나온 것은 고등학교 때부터 나왔지요. 고3 때부터인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지요. 그러다 병이 걸려 어려움을 당할 때 당시 전도사님이셨던 김창원 목사님께서 문병오셔서 기도해 주심으로 힘을 얻고 병이 낫게 되었는데 병석에 있을 때 신학교에 가기로 결심을 하여 신학교에 갔지요. 김목사님 추천으로 신학교에 가서 2학년때부터 부지도결 유년부 교사를 했지요. 3학년때부터 정식으로 지도를 맡게 되고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 근 10년간 교역자로 봉직하고 있는 셈이지요. 그리고 전도사 때는 유년부를 맡았고 그후 중등부·고등부·청년부·대학부를 맡아 일했지요.

10년 동안 계시면서 느끼신 점과 충현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한마디로 「생동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망감있게 활발히 움직이는 공장과 같은 교회라고 봅니다. 주일뿐 아니라 평일날에도 찬송과 기도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동되어 있는 공장과 같은 힘있고 살아 있는 교회라고 봅니다.

저희 교회에서 학생지도에 대해서는 가장 오래, 맡아 수고하셨는데 지도하시면서 애로점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교육부만 계속 맡아 보고 있었는데 제가 충실치 못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려고 했으나 줄려고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자란단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역부족을 느껴 가면서 지내왔다고 생각합니다.

주일학교의 지도방향은 먼저 학생들에게 치료하는 입장에 서서 지도했으면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점을 치료해 주어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하는 일을 교회가 맡아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생들의 문제점을 바로 진단하여 치료해 주어야 젊은이들을 유치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특별히 학생들(고등부·대학부·청년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주로 대학생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생활에 맞지 않는 일이 있을 경우 불평·비판만 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만족스럽게 되는데 참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고등부나 청년부나 공히 기다리면 깨닫게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순종하는 형의 학생자세가 필요하리라 보며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캐나다로 가시게 된 동기와 정확히 캐나다 어느 교회로 가시는지요.

김목사님의 해외선교와 일꾼양성의 일환으로 해외여행하시면서 「내 교회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세계로」 보내기로 하신 선교비전에 의해 캐나다를 방문하던중 토론토시 중앙에 있는 우리 교단에 속한 한인중앙교회에서 김목사님 밑에서 일하시는 교역자 한분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셔서 귀국하신 다음 제게 외출을 물어오시게 되어 승락해서 준비하게 되었지요. 그것이 지난해 8월이었지요.

가신후에 본교회와의 관계는 어떠하시며 가신후 그곳에서의 목회 및 선교활동은 어떻게 설계하고 계신지요.

간다고 해서 충현교회와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고 선교의 사명으로 가나 정식 선교사가 아니고 한인목회와 선교활동을 할 목적으로 가는 것이므로 늘 본 교회에 보고를 할 것이며 재정적인 면만을 제외하고는 계속 지원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회에 성공을 하여 부흥시킨 후 본교회의 일꾼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까지 마련하여 본교회 선배 목사님들의 은공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목회와 해외선교를 위한 터전을 마련하고 북한선교의 거점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설계는 김목사님의 말씀과 말씀 중심의 교회로 기도하는 교회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로 키우고자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을 배우기 보다 말씀으로 이끄는 말씀 보수회 교회가 바람직하리라 봅니다.

목사님의 가족관계와 그곳에 계실 사택문제?

가족은 사모님과 3형제(12살, 9살, 8살)인데 막내가 국민학교 1학년인데 다행히 국문을 알아요. 성경을 읽으니 마음이 놓입니다. 사택은 아파트를 정하여 놓았습니다.

교회와 성도님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선교사는 전쟁에서 적과 전쟁에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전방의 특공대를 위해 후방에서의 지원사격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후방에서의 지원사격으로 기도로 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선교대열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역 소식

축하합니다(11월 중 결혼)

- 서영수군과 유은성양/가좌구역, 11일 2시 본교회 당에서
- 이만영군/이호상씨 아들, 11일 3시 아스트리아 호텔에서
- 유정복양/유병준집사 동생, 11일 12시 청주 예식장에서
- 박윤화군과 고인숙양/청년부 회원, 18일 3시 30분 본교회당에서
- 한승조군과 권영실양/이귀옥 집사 장남, 18일 1시 종로예식장에서
- 서해선양/이금남집사 장녀, 17일 2시 이천 미미예식장에서
- 이경애양/김중순권사 3녀, 21일 11시 30분 영동포신한예식장에서
- 정영태군과 김윤희양/유년부 교사, 21일 1시 본교회당에서
- 임금옥양/본교회 직원, 23일 12시 30분 본교회당에서
- 윤일혁군과 정근실양/청량리구역 25일 12시 본교회당에서
- 최성자양/김병준집사 딸, 25일 12시 본교회당에서
- 김진숙양/노인덕집사 2녀, 12월 2일 1시 30분 로얄호텔에서
- 최명주양/장성준집사 딸, 12월 2일 2시 행복예식장에서
- 허정남군과 강병애양/초동부 교사, 29일 1시 동원예식장에서

위로 드립니다(11월 중 별세)

- 이삼해서/시흥구역, 11일 별세, 13일 장례
- 이서희씨/이덕순권사 모친, 18일 별세, 20일 9시 30분 장례
- 전덕순씨/나봉녀집사 부군, 22일 별세, 24일 장례
- 박은덕권사/창선①구역, 25일 별세, 27일 9시 30분 장례

□ 해외에 계신 충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구역장 노트 ㉔

구역장 특별수련 자료(2)

백성통목사

(부목사·전환회장)

(3) 구역교우지도를 위한 준비
구역장은 평소애 충분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학습해야 한다. 매일 성경을 읽는 일은 물론 요리문답서를 자주 읽어야 하며 교회 헌법책에 있는 예배모범과 헌법적인 규칙 등을 기본적으로 익혀 두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주부와 월간지(월간 충현) 등 입수되는 모든 간행물에 내용을 주의깊이 살펴보도록 해야 하며 가급적 허락되는 대로 모든 집회(특강 등)에 참석하도록 할 것이다.

다음에는 지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지도 이전에 구역장은 권찰들과 더불어 구역원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한 해에 2회 이상 심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그 시기는 되도록이면 대심방 전에 예비적으로 심방하면서 실태를 미리 파악해 두었다가 대심방 때에 자료를 제시하면 더욱 좋다.

구역교우들을 지도할 수 있는 기회는 이같이 심방하면서 가능하게 될 것이며 아니면 교회당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한다. 새신자의 경우는 꼭 심방 아니면 교회에서 면접하도록 할 것이다. 매주 심방하는 구역장들에게는 과히 문제가 되지 않아도 직장에 매일 분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성의를 다해서 계획을 짜고 한 달에 몇집씩이라도 찾으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4) 구역장들간의 협력관계
인접구역 구역장들과 늘 대화를 갖도록 함이 좋다. 경조간 협력하기 위하여 조직된 구역간에는 월 1회씩 만나서 피차의 사정을 알도록 할 것이다. 매달 첫주일 구역예배 예비공부시간을 이용해서 만나면 과히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될 줄 안다.

(5) 보고관계
구역행정에 능률을 올리기 위하여 각지구마다 3명의 간사가 있고 서기 3명이 있어서 각구역에서 제출되는 월말보고서를 받아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중간역할을 하는 분을 때문에 교역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보고가 늦어져서는 안된다. 긴급을 요하는 보고사항은 적자로 표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만은 꼭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직접 담당 교역자에게 말해 주어야 할 것이다.

통계업무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서는 시간차를 없애야 할 것과 긴밀한 연락과 기린한 업무처리라는 데 있다. 이런 점에 유의해서 구역행정의 발전과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1979년도 각기관 인사이동

주일학교 · 성가대 및 구역권찰회

1. 어린이 새신자부

부 장: 김은호 부 감: 김원선 명정옥 지 도: 김경신
부지도: 김은숙
남교사: 신영권 김경철 정운석
여교사: 김금옥 김영화 김만순 실명옥 백옥자 정순이
김현순 김미애 송영록 박종갑 박진순 유옥련
박양덕 김인선 최명옥 윤숙희 민병기 최미희
안정숙

2. 장년 새신자부

부 장: 김한홍 부 감: 문홍구 이명자 지 도: 정상우
부지도: 구명신
남교사: 강순용 이창준 박인세 송인홍 이봉섭 변규선
서일영 이원천
여교사: 백도선 유분홍 홍순애 김신성 정영수 노희춘
최란수 정정자 여옥기

3. 영아부

부 장: 김영개 부 감: 정하우 배옥인 지 도: 정소영
부지도: 이우신
남교사: 이승철 안의경 문영배 박인관 김종구
여교사: 임옥순 이승하 김미자 심혜숙 김영혜 김봉숙
조추자 김정애 정옥희 전길복 홍종락 정금숙
오인숙 김용순 최수경 김경림 최태옥 최영선
백희순 최계순 윤봉자 이병희

4. 유치부

부 장: 김의철 부 감: 박치민 이희수 지 도: 정연희
부지도: 장선애
남교사: 박찬섭 김영길
여교사: 박영자 남명우 김경옥 이경애 장경애 이경자
박혜숙 허순이 장성혜 김경자 한형실 김순화
양은혜 정숙자 이희단 노혜정 이은경 홍명희
김철순 한명신 이홍자 이경현 김영숙 김순화
김수련 유금순 최 규 박혜영 한영옥 김은주
홍정옥 유순희 한정은 고소정 지경애 정금수

5. 유년부

부 장: 윤명식 부 감: 강은원 이정애 지 도: 이양우
부지도: 김양태
남교사: 노경모 김승곤 이설호 강종구 김경생 조용준
양인환 이창호 윤석산 김연식 양병진 권 용
김종환 이태영 정영래 김영수 장익도 김관봉
여교사: 김순련 한원남 박선희 윤정미 박진숙 박이선
최화자 송선자 신성자 박이숙 진경희 정옥이
백화영 이성은 이홍선 최경애 주복순 김정자
김승연 박혜원 김현옥 홍지향 김은백 강영옥
김점순 박도윤 임춘자 이경실 김송자 임옥만
김현미 임옥순 김진선 김인숙 문복자 유영애

6. 초등부

부 장: 한경일 부 감: 박승준 이명자 지 도: 김석원

부지도: 안석필

남교사: 황현철 장주석 신중명 김영근 조관식 홍성구
김시주 오영희 송영섭 임기채 박정태 이영일
박진순 김규환 김중선 윤봉준 박철구 김상덕
원용규 황영호 이승재 최석진
여교사: 마미화 김명순 장복인 이정옥 안신덕 김수희
신정희 장희숙 김성실 이성옥 이은순 김정자
김현숙 김은숙 한정미 이미자 신은자 박현옥
한연수 이소규 이혜봉 조희숙 한영준 손순천
곽숙단 강병애 임종란 김유순 송양원 김정애
김윤희 홍화숙

7. 중등부

부 장: 김종석 부 감: 손동운 문옥순 지 도: 김남수
부지도: 김정훈 김순옥
남교사: 황명길 전남일 김환기 장철환 안석현 한현일
오정현 장병기 김영은 정재모 장성일 허세동
김종연 현홍석 장주영 권명옥 신우섭 서진울
김영록 이한승 정홍관 이병수 유국현
여교사: 최명자 이애나 정희공 김정화 김영집 송경자
성덕순 최선희 박양자 공향조 유재울 조덕희
김숙옥 고인숙 임옥란 이인실 정숙향

8. 고등부

부 장: 이용선 부 감: 김광선 이순녀 지 도: 이승근
남교사: 이상현 이형수 하대선 이종국 오정수 윤광일
서동석 신재원 이 욱 김인석 황희만 노문환
임정우 김현수 이상만 문성환 안명수 신표근
안현용 정영수 남궁은 권명상 김종주 오태용
여교사: 조중선 홍순희 안유향 최성희 유희섭 오신숙
유미희 김복순 김동석 최영화 김영숙 윤경숙
김연옥 이인숙 이종옥 김태민 조경옥 김영미
윤보섭

9. 산업전도교육부

부 장: 오태희 부 감: 최성현 정선화 지 도: 김중석
부지도: 김수성 김순애
남교사: 이성섭 김준표 김장근 한송규 김구현 정관호
유원열 마성락 조성형 전용원 이남성 김과경
여교사: 현정남 박두이 최희서 장정숙 김영숙 김종순
엄의용 유순자 정숙희

10. 대학부

부 장: 윤용규 부 감: 정영남 이춘식 지 도: 윤형철
부지도: 김경성
남교사: 임정배 김보일 고재원 성주진 손경수 최정만
한형식 윤완원 정영수
여교사: 위은성 임태주 허애경

11. 청년부

부 장: 홍중섭 부 감: 박재용 손명순 지 도: 이성봉
부지도: 김연이

남교사: 송기홍 오해창 이상호

12. 장년부

부 장: 신영태 부 감: 오진국 김상권 지 도: 김종택

남교사: 정광호 김영생 김재균 최태원 신윤호

여교사: 천병희 지숙원 서용근 서상연 김동호 최임덕

송형섭 김영희 유순녀 김유혜 김순호 심 숙

방제운 이인경 엄화순 조복덕 서춘자 문정숙

김병준 이옥인 김중복 김경숙 김정임 박영열

최경복

13. 노년부

부 장: 박창수 부 감: 고병옥 김정숙 지 도: 김재창

부지도: 박현모

남교사: 강모용 서동춘 엄필성 최상규

여교사: 이길남 김창린 노영숙 백옥섭 홍원선 임경순

김순초 이덕순 장순실 김정자 황정숙

14. 선교부

부 장: 위영환 부 감: 남선우 안윤진 지 도: 김영휘

15. 새 가정부

부 장: 이동규 부 감: 박성수 안인현 지 도: 윤영탁

<제 1 성가대>

대 장: 노광현 지 휘: 김연술 반 주: 이승순

소프라노: 신계은 김숙연 고제은 정영희 박명연

황계화 김명숙 오윤숙 김영희 김희영

장정남 임평순 박영순 이춘태 김순련

윤영숙 김창임 이혜숙 민경옥 윤명숙

김경애 이희숙

알 토: 김선희 박현주 이문숙 전은실 최수행

한옥봉 정명실 박영복 이신애 강승범

정명희 김혜숙 최복순 최은주 고희재

임정화 김보영 장영옥 이은희 남경희

테 너: 김재중 김광호 김영환 이원웅 박종현

이근식 한기호 박철순 오근철 이충복

나희주

베 이 스: 지금산 노광현 원용철 이 훈 이희상

손정익 안종현 황철규 차신희 이정우

이일영 백기현 김성호

<제 2 성가대>

대 장: 김천재 지 휘: 김중석 반 주: 조희영

소프라노: 김명실 김혜숙 남명숙 이승임 이옥주

이은미 이현숙 전애소 차미화 김영희

오순숙 양은경 이미수 김영애 박혜원

박상옥

알 토: 이영희 최명화 이명혜 장춘혜 황유경

한운만 김영애 김옥영 유은숙 김순미

이성희 홍성희 권석연 김정희 김정애

김오목

테 너: 허성국 김은배 김성준 한승일 강만수

최 진 조성수 임창식 최병식 김천재

베 이 스: 이근수 이병학 이찬수 김성진 오영중

석영식 홍춘식 문영춘 박성명

<여성성가대>

대 장: 박옥식 지 휘: 최관후 반 주: 서은숙

소프라노: 최순자 박옥식 김화춘 박순봉 변순복

최봉숙 유현숙 문명애 김일순 박월희

조미경 홍순영 장옥순 이현숙 안경덕

박혜숙 장영희 윤성자 송수만

알 토: 조계진 우문희 최영호 김영숙 한동숙

문선옥 조동숙 김영숙 남수현 김능실

한금희 강보길 유금열 서현숙 장명숙

최상선 김영자 안소현 어은애 정원향

김희옥

메 조: 민은혜 전인화 김진만 김영남 장영옥

유말선 이귀분 김성신 이춘실 조춘복

하영자 김춘지 현 계 고경자 박현숙

양선자 이명자 남정애 유정자

제 1 지구 구역담당

순위	구역명	장	로	권	사	구역장	권	할
1	상 계	한경일			고신옥	이도영	이도영	이옥현 유기영
2	도봉 1	〃			김창린	김창린	김옥희	이부전 김홍순
3	도봉 2	〃			박옥식	박옥식	최 순	박순희 권영자
4	창 동	〃			송형섭	이호성	이정숙	노 빈 김숙기
5	수유리	최성림			정말엽	소정부	강희자	최복순
6	우이 1	〃			이신일	이신일	방여순	백영희 전현신
7	우이 2	〃			최수남	이상호	김순혜	전정숙
8	번 동	〃			백현옥	이한승	황재연	송수민
9	삼양 1	한명옥			김순초	반정현	전일양	반정현
					민원옥		권명선	
10	삼양 2	〃			김효정	송기홍	이영남	정운순
							서양순	서금선
11	삼양 3	〃			양재숙	황현철	이귀옥	박정서
							안순자	유재춘
12	장위 1	김방진			최경숙	최성현	전희순	서영자
							최태옥	이인경
13	장위 2	〃			이영주	김정선	방소애	이승자
							고금자	
14	미아 1	〃			정삼엽	염숙현	염숙현	김정애
15	미아 2	〃			백옥섭	김성택	이귀래	강봉옥
							김춘자	
16	월 곡	〃			이대실	이대실	김운실	조기형
							이죽화	
17	길 읍	위영환			정양순	정재모	남일호	이홍순
							김명자	
18	정 능	〃			이옥인	하대선	최복인	남상인
					성복순		유화영	하춘자
19	중 압	〃			김희옥	이영일	추순자	이영희
							이명옥	
20	안 압	〃			남숙덕	최상규	김정옥	조미경
					민순애			
21	돈 압	김창배			이봉재	김인관	김희옥	강상관
							유옥숙	신임균
22	보 문	〃			조계진	양숙란	양숙란	박정자
							양영자	
23	삼 선	〃			전옥희	전옥희	김연수	최혜숙
							김연옥	김정섭
24	등소문	〃			나화봉	이희진	박은숙	이정희
							이말분	
25	성 북	〃			심 숙	김남조	한경석	김일순
							이의순	

26	청량 1	최석주	이재준	고재원	박진업	고숙기 유혜숙	이순희
						조덕순	정민자 박진준
						박경애	열호녀
27	청량 2	"	정원환	강은원	정명섭	홍재옥	최혜순
						홍재옥	조혜순
28	승 인	"	차순정	오석부	한선희	경홍옥	박정주
						김순이	박정주
29	창신 1	"	임화순	양창익	정주한	한금례	강희복
						이청자	조상엽
30	창신 2	"	임화순	박인세	이인자	경명옥	강희복
31	등 승	홍중섭	이점순	안정엽	안정엽	박길순	장희자
						김수일	윤정미
32	연 건	"	이봉남	이성원	김순현	신순화	박승호
						최신화	강인애
33	등대문	"	김정숙	김정임	김정임	김 순	김정숙
						황규선	김정숙
34	광희 1	"	김순애	조성행	안옥실	노순경	김정숙
						권오순	김정숙
35	광희 2	"	김봉재	고영태	최영희	고영태	김정숙
						이순덕	김정숙
제 2 지구 구역담당							
1	암 사	윤명식	양정옥	오정수	이옥기	이영희	김정숙
			백금순				김정숙
2	친 호	"	문명숙	이형수	박윤태	신윤덕	김정숙
			안유향		박형석		김정숙
3	풍 남	"	제명선	윤여진	문정애	김순자	김정숙
			이신주		윤여진		김정숙
4	구의 1	오태희	고정임	김영근	유영희	장숙인	김정숙
					이명자		김정숙
5	구의 2	"	이의복	한현일	장만실	박영규	김정숙
			한정숙		최방희		김정숙
6	군 자	"	함승현	수인홍	최연주	곽영자	김정숙
					조순희		김정숙
7	승 정	"	박정희	이원천	전정자	신영순	김정숙
					김의숙		김정숙
8	중곡 1	윤명식	정불관	윤봉준	조복덕	한금희	김정숙
9	중곡 2	"	임명진	전정일	유서규	이호제	김정숙
					박말수	황정숙	김정숙
					정순오		김정숙
10	면목 1	윤용규	유정희	한신호	임순심	최인식	김정숙
					김명숙	문경희	김정숙
11	면목 2	"	김정래	박상운	서상옥	민명식	김정숙
					최성도	전경자	김정숙
					임경순		김정숙
12	태 능	"	허미주	양종석	김영숙	김옥분	김정숙
					계순옥		김정숙
13	중 화	"	지숙원	서동석	조귀남	서귀순	김정숙
14	망 우	김은호	김경희	김동원	이춘일	조남순	김정숙
					김복순	이인선	김정숙
15	전 농	"	최천금	정춘수	홍양래	우점옥	김정숙
					정춘수		김정숙
16	담십리	"	이정자	오정현	이진순	김금남	김정숙
					임근애	김복운	김정숙
17	이 문	"	정경옥	김창현	황성래	한응화	김정숙
					박정아		김정숙
18	위 경	"	김세동	이병학	한순희	임옥순	김정숙
19	마 장	김종석	송귀남	김보일	박갑배	유병순	김정숙
							김득은
							심영순
20	홍 익	"	서금순	정민자	정민자	박진준	김정숙
21	행 당	"	임춘선	홍풍자	홍풍자	열호녀	김정숙
22	왕십리	"	서용근	김천체	서춘자	최진녀	김정숙
						박정주	김정숙
23	홍인 1	황창룡	정삼례	궁희복	조상엽	궁희복	김정숙
					장희자		김정숙
24	홍인 2	"	정봉조	정운석	윤정미	강인애	김정숙
					박승호		김정숙
25	문 화	"	최춘란	이희권	성덕순		김정숙
26	신당 1	정석태	백복엽	최대원	김정한	김옥순	김정숙
			김외생		소현숙	신금녀	김정숙
					장영희		김정숙
27	신당 2	"	박석순	이승무	김은균	이옥남	김정숙
					임선애	조두례	김정숙
28	광희문	"	박순옥	김준호	신정희	김종립	김정숙
			김영옥		최무순		김정숙
29	장충 1	"	서상연	송환창	홍화범	김관옥	김정숙
30	쌍림 1	이태규	김정옥	김영생	이정원	임경희	김정숙
					오경옥		김정숙
31	쌍림 2	"	이현순	이종국	김춘지	허경은	김정숙
					오화자		김정숙
제 3 지구 구역담당							
1	성 남	박창수	서영희	김종구	이상금	최태희	김정숙
2	잠실 1	"	이마리아	이인상	유정일	박용녀	김정숙
			이예강		박정래	윤영인	김정숙
3	잠실 2	"	천병희	노문환	조재숙	서영남	김정숙
					장명숙	이윤영	김정숙
					양명희		김정숙
4	잠실 3	"	고선찬	이상현	조춘복	김영자	김정숙
					박점순		김정숙
5	잠실 4	"	홍련봉	장순실	김용숙	이명숙	김정숙
			장순실		홍유순	전순옥	김정숙
					강정옥	김경래	김정숙
6	도곡 1	윤종성	김정임	박성수	김혜옥	최영선	김정숙
					김 화		김정숙
7	도곡 2	"	김선운	차신득	김정화	최 규	김정숙
					김명희		김정숙
8	선정 1	"	강경자	김삼덕	조추자	윤정희	김정숙
					송영배		김정숙
9	선정 2	"	홍원선	김창옥	손보석	한경숙	김정숙
					최화순		김정숙
10	삼 성	윤종순	백도선	조인제	윤수원	박정순	김정숙
11	강남 1	"	노영숙	홍주영	김영남	조종원	김정숙
					김연옥	이순천	김정숙
					최현숙		김정숙
12	강남 2	"	허윤실	김재명	노인덕	김능실	김정숙
					장영자		김정숙
13	청담 1	"	문정애	이종섭	김분선	박우순	김정숙
					홍명순		김정숙
14	청담 2	임광식	김순실	신윤호	최난수	장기옥	김정숙
15	논현 1	"	유정수	오진국	김정덕	이명자	김정숙
					현 계		김정숙
16	논현 2	"	조성은	김 순	조병숙	심상순	김정숙
					김 순	안기선	김정숙
17	압구정	"	신군자	김인원	김운송	최경숙	김정숙
					김득은	심영순	김정숙

18	화 양	우성원	김은애 한정숙	정도원	임인순 박인자	한경분
19	자 양	"	민금행	문홍구	필기복 박영임	남은주
20	성 수	"	우문희	전용원	송경자	백영애
21	이태원	신영대	박용주	이정애	조분자	이정애
22	보 광	"	노승녀	김원선	김옥래	이숙화
23	한 남	"	이곤녀	신순덕	문명애	이숙자
24	옥수 1	"	김선도	강복기	강복기	김은덕
25	옥수 2	"	전영화	이창호	유만녀	김은덕
26	응 봉	강순용	박선자	김태호	한영자	남순덕
27	금 호	"	황숙영	김연식	김태전	신춘희
28	청 구	"	조말례	신영권	김용배	김복자
29	약수 1	"	정순자	채태선	채태선	최영실
30	약수 2	김기정	박외법	김순동	이재봉	김순동
31	장충 2	"	정임순	박철구	김종렬	마경자
32	장충 3	"	전정숙	안정남	유후자	유말선
33	장충 4	"	이덕순	유말선	배정자	한 복
34	목정 1	이태규	조옥섭	조옥섭	김병숙	경순이
35	목정 2	"	김의저	전철금	전철금	이순희

제 4 지구 구역담당

1	시 흥	김차생	김종순	강봉수	최정숙	차정은
2	신 길	"	이정신	김영진	이학주	이병숙
3	신림 1	"	변순복	박관영	김숙자	김미자
4	신림 2	"	김신덕	엄규동	안춘자	최혜영
5	대 방	"	김병준	오해창	나을진	양숙자
6	봉천 1	조현명	김복남	김경생	김유순	이영숙
7	봉천 2	"	장기옥	백순희	백순희	임정자
8	관 악	"	양정택	정하우	이규숙	이정애
9	사 당	"	이순녀	김영걸	유금순	김복선
10	상도 1	김영삼	이순자	임무천	한경옥	이난숙
11	상도 2	"	김매녀	김매녀	구영인	진경애
12	방 배	"	김복녀	김복녀	김태점	김석순
13	반포 1	이동규	김상준	김상준	서석임	박영숙
14	반포 2	"	김조영	김조영	유혜미	이명자
15	여의도 1	"	손명순	정인종	신명희	이인숙

16	여의도 2	"	변철순	김수광	박명업	김인호
17	서강 1	전희문	박순봉	김종주	김영희	강석란
18	열 리	"	김애순	현홍식	민양순	오갑성
19	마 포	"	유분홍	이진호	오덕희	우종아
20	이촌 1	"	지영실	안익태	김동옥	허인숙
21	이촌 2	이창준	김봉선	최찬후	이춘실	최순영
22	청 파	"	정선화	최명환	김동호	김희자
23	용 산	"	이옥녀	이승철	나영희	김미자
24	후 암	"	윤인숙	윤인숙	박순남	박순옥
25	회 현	이응선	이학주	박치민	방계운	남미희
26	필동 1	"	김이숙	정정주	김화춘	유일옥
27	필동 2	"	안인현	안인현	변인옥	이춘재
28	필동 3	"	안윤진	장수정	장수정	반 월
29	인현 1	김희철	이희수	윤인현	김중복	도성희
30	인현 2	"	최귀영	지금섭	채선옥	서인순
31	진 양	"	오희명	박선부	박선부	안경덕
32	화 원	"	전성조	정재금	이규현	강순남

제 5 지구 구역담당

1	오 류	김한홍	문매성	이 옥	안소현	구정래
2	개 봉	"	이영숙	안종옥	이수자	정순옥
3	화곡 1	"	문정숙	박춘봉	이연섭	손명해
4	화곡 2	"	이강희	이 춘	박인옥	김연균
5	화곡 3	"	노희춘	박승준	김춘경	최영숙
6	구 로	오승률	김복희	김태희	박영자	변순희
7	문 태	"	유미희	유미희	김귀녀	홍정숙
8	동 고	마성락	김화면	최무길	김영숙	조 숙
9	신 춘	"	이명자	심정우	김영자	
10	망 원	오승률	오춘화	김순복	윤광일	김정숙
11	서 고	"	여옥기	조경옥	김옥선	조경옥
12	북가좌	황기성	조신애	조희철	한경화	박종민

토막소식

13	남가과	마성락	이문자	박성옥	장병기	박인애	최정숙	정수자
14	연회	"		윤봉옥	양경희	이대성	홍영숙	
15	응암1	황기성	최임덕	한형식	전명옥	유현숙		
16	응암2	"	김상권	이희상	박진녀	이오복		
17	역촌1	김영개	윤희순	설관호	김영옥	전혜선	정우남	
18	역촌2	"	안차녀	전남일	김중순	김정자		
19	갈현	"	김영희	박철훈	박순규	고남균	원형신	
20	불광	"	이순근	오태용	이계철	최숙진	김옥희	
21	홍제	송순일	임순철	임순철	김영숙			
22	서대문1	조선근	최무정	강모용	최태옥	차순복		
23	서대문2	"	이진남	송영섭	백외주			
24	청운	"	윤영애	신영순	김원화	신영순	송영배	
25	효자	"	이명자	김과경	김명실	이민재		
26	가회	송순일	김두성	강정선	윤옥녀	나봉도	이필녀	
27	종로	"	전순자	전재룡	이현숙			
28	혜화	지금산	원도화	서동석	이홍선	박순옥		
29	명륜	"	석옥순	김동삼	경순영			
30	초등	"	이희원	정은표	황순화	안순이	전순임	김복인
31	율지1	"	윤순탄	하영자	하영자			
32	율지2	이원철	서옥	서옥	장순자	정태옥		
33	중부	"	김순호	김은숙	김은숙	김봉실	정정희	오윤자
34	중부1	"	조필순	김재균	김익숙	김진만		
35	중부2	"	유갑순					
			박연섭	박병은	한외조	공순자		
			김란옥					

- *...교회에서는 12월 철야기도회를 8일 기도원서 은혜중 마쳤다.
- *...교육위원회는 78년도 교사총회를 26일 본당에서 가져 78년 결산과 79년 사업계획을 부별로 통과시키도록 한다.
- *...권사회는 11월 26일 회지「충현권사들」 창간호를 발행했다.
- *...영아부에서는 3일 4학기 성경공부복습을, 10일 4학기 시상을 가진다.
- *...유치부는 3일 4학기 성경공부복습을, 10일 4학기 시상을 22일 교사 특강을 가진다.
- *...유년부는 3일 성경시현을 10일 4학기 시상, 24일에는 수료 및 진급식을 가진다.
- *...초등부에서는 3일 4학기 성경시현을, 10일 4학기 시상, 24일 수료식 및 진급식을 가진다.
- *...초등부 어린이회에서는 3일 정기총회를 가졌으며, 9일 친구임원회, 10일 성탄카드 모으기와 위문편지쓰기, 성탄주제품 모으기를 한다.
- *...중등부에서는 3일 4학기 성경시험과 수료생 기념촬영을, 10일 4학기 시상, 24일 수료 및 진급식을 가진다.
- *...중등부 면목회에서는 11일 정기총회를 가진다.
- *...고등부에서는 11~12일에 임원훈련을 10일에는 학부모초청려담회를 22일에는 전방 군부대위문을 24일에는 수료 및 진급식과 수료생 환송회를 가진다.
- *...대학부에서는 3일 졸업생 및 진급자 명단작성을 하였으며 10일 졸업생 기념촬영을 했으며 16일에는 졸업생환송회를 23일 전방부대 위문을, 29일에는 철야기도회 및 송년모임을 가진다.
- *...산업진도교육부는 10일 반장훈련을, 3일 정기총회를 했으며 17일에는 친구임원회를, 30일에는 회원기도회를 가진다.
- *...청년부에서는 17일 시화전을 24일 성경읽기 시상, 30일에는 송년모임을 가진다.
- *...장년부에서는 15일 교사기도회를, 17일 수료생환송회를, 24일 수료식 및 진급식을 가진다.
- *...노년부는 10일 4학기 시상, 하였고 24일에는 연말총합시상을 한다.

□ 주일 집회 및 헌금 통계

1978. 11. 5 현재 (매월 첫주 기준)

<집 회>					<헌 금>				
구분	남	여	계	회	구분	남	여	계	회
예배	I부	195	346	541	예배	I		142,870	예배
	II부	409	971	1,380		II		382,330	
	III부	319	677	996		III		345,700	
	IV부	78	224	302		IV		94,340	
주일	주일저녁	218	375	593	주일	심일조		5,057,155	주일
	삼일	117	273	390		월정		468,700	
	I	19	24	43		감사		756,200	
	II	9	60	69		생일		39,500	
영아부	영아부	122	123	245	영아부	경조		181,000	영아부
	유치부	132	128	260		건축		4,654,481	
	유년부	161	177	338		새신자		3,420	
	초등부	166	182	348		영아부		70,367	
중등부	중등부	164	141	305	중등부	유치부		49,990	중등부
	고등부	166	145	311		유년부		37,505	
	대학부	82	88	170		유년부		44,575	
	청년부	59	62	121		중등부		38,285	
노년부	노년부	30	271	301	노년부	고등부		54,025	노년부
	노년부	25	77	102		대학부		90,240	
	노년부	23	77	100					
	노년부	23	77	100					
계				2,494	계				12,510,483

□ 신급별 교인통계

총세대수	교인총수	새로교인	유세	학습	원입
2,954	2,742/4,082	1,482/2,711	412/319	273/347	575/705

보급이 시작되었습니다

당회장 김창인 목사 설교집 제 1 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크라운판 80모조 400면 / 고급양장 값 3,500원 반양장 값 3,000원



한국교회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기다리던, 김창인 목사가 힘있게 외친 서른 일곱편의 설교가 우선 한권의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저자의 설교를 한번이라도 들으신 분에게 이 설교집은 지금 막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있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설교집은 내용 편집과 제작면에서도 정성을 들인 만큼 각 가정에서 읽고 나면 장서에 좋을 뿐더러, 친구·친척·친지 또 해외에 계신 성도들에게 보내면 더 없이 좋은 성탄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 설교집은 전국 기독교 서점에서 보급하고 아울러 문서전도의 일환으로 본교회 도서실에서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 목회에 승리를 거두고 계신 김창인 목사님의 설교집이 우리 교계에 나오게 됨은 기쁜 일입니다. 이 책이 영어로 번역되어 그분이 전도여행을 다녀온 세계 각국의 많은 성도들에게도 애독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경신학자 박윤선 목사>

■ 대중적이면서도 평이한, 김창인 목사님의 설교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늘 역사하였습니다. 그 설교들이 이제 그분이 강단에서 외친 그대로 꾸밈이 없이 문서화되어 나오게 됨은 우리 교계에 참으로 큰 수확이라고 봅니다.

<총신대학장 김희보 목사>

편집하고 나서

*...1978년도 마지막 호를 손대면서 한해를 돌이켜보니 감개무량하다. 이 해는 교회설립 25주년이어서 갖가지 행사가 술가를 정도로 많은 중, 지난 4월 제 1회 총현선교대회를 가진 일, 5월엔 고대하던 성전건축 기공예배를 드린 일, 6월에 총현기도원 봉헌예배를 드린 일 등 일일이 예거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성급한 성장 가운데서도 어떤 것들은 미해결된 채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되었다.

*...교회의 발전과 함께 월간총현도 한 단계 성장하여 보겠다고, 새해에 가졌던 바램이나 결심도 실무진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기대만큼 되지 못했다는 부끄러운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어, 하나님 알과 독자들에게 그저 죄송하고 미안할 따름이다. 특히 해외에 계신 총현 가족들에게 다소 불만(?)을 준 게으름도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이달에도 계속해서 내년도 인사에 관한 주일학교·성가대·각구역에서 봉사할 일꾼들을 발표한다. 편집상 당초에 기획했던 일들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제 1특집으로 김하진 목사님의 「성탄캐럴의 유래와 내용」 박종구 장로님의 성탄동화 「색연필」, 제 2특집으로 김진택 목사님의 「말씀의 신비」 등 새로운 읽을거리들을 내놓는다. 금년에도 월간총현을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머리숙여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 1978년 월간총현 조직 □

총현출판위원회

월간총현분과장 / 조현명

서기 / 조신근 회계 / 배옥인

분과위원 / 정상수 이준교 김차생
윤형철 박성수 정은표
이형수 오태용 고계원
이사례

주간 / 이준교 편집국장 / 이형수

간사 / 오태용 고계원

기자 / 성주진 정윤명 유미숙
홍지향 김인숙

월간총현

12월호

제 6 권 통권 제 60 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8년 12월 10일 발행

발행인 / 김 창 인

편집인 / 조 현 명

주간 / 이 준 교

편집국장 / 이 형 수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현교회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

267-9937-9738

269-7726(편집실)

❁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



교회에서는 미국 맥클린 한인교회와 자매결연을 맺어 패를 전달하였다.



대학부는 학생신앙강좌로 크리스찬의 과학관·역사관·생활관을 가졌다. 크리스찬의 생활관이란 주제로 김영혁 박사님을 모셨다.



교회에서는 해외이주자를 위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한다.



유·초등부는 추수감사절을 기해 존국발표회를 19일 유년부실에서 가졌다.

장로투표(11·12)에서
피선된 분들 —
〈연령순〉



◇신 현 상(집사)
●해외선교 실행의원



◇고 병 목(증경장로)
●고등부 교사



◇김 경 철(집사)
●새신자부 교사



◇우 기 전(집사)
●재정위 위원



◇손 동 운(집사)
●산업전도회 서기



◇노 광 현(집사)
●제일성가대장



크리스마스

구름과 태양에 의해 그늘진 그림자가
여름 풀밭 위를 가벼이 지나가듯
전능하신 주여, 당신의 눈 앞을,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림자처럼 지나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뒤따르는 군사들처럼
세월이 밀려왔다 곧 사라질 때
땅 위의 자람이었던 위대한 이름은
순간적인 빛을 발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저 베들레헴의 별은
매 밝고 잔란한 빛을 비추며
지금도 또한 옛날이나 다름없이
메시아가 계신 곳으로 우리들을 인도합니다.
오오 아버지 하나님, 저 거룩한 별로 하여 해마다
그 빛을 더욱 더 더하게 하십시오
온 세계가 그 빛에 가득할 때까지
영광에 찬 빛을 보내 주십시오.

〈윌리엄 브라이언트〉

실로암
못가에서